

HEADLINE

뉴스 3P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진행



특집 12P

‘2013 전국지체장애인의체육대회’
이모저모



인물 14P

“중증장애인이 그녀는 나에게...”



건강 15P

신체기능 마비 환자 한 해 6만명



‘2013 전국중증장애인배우자초청대회’ 참가자와 자원봉사자들이 10월 18일 N서울타워 팔각정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장애인 부부의 서로를 향한 헌신적 삶 귀감

‘2013 전국중증장애인배우자초청대회’ 열려

배우자를 향한 헌신적 사랑으로 귀감이 되고 있는 중증장애인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한 시상식이 열렸다.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의협회(중앙회장 김광환, 이하 지장협)는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2013 전국중증장애인배우자초청대회’를 열었다.

전국 중증장애인 부부 50쌍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는 총 10명의 장애인 배우자가 표창장을 수여받았다.

대회 최고상인 ‘장한배우자상(보건복지부장관상)’의 영예는 1급 지

체장애인인 채찬병(강원) 씨에게 돌아갔다.

채 씨는 자신의 장애에도 뇌병변 장애인인 아내를 지극정성으로 돌보며 살아오고 있다. 시상식 후 동영상 통해 소개된 채 씨의 사연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전하기도 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채 씨 외에도 편강분(경기)·박영미(충남)·장길녀(전남)·최필출(경북) 씨가 ‘아름다운 배우자상(보건복지부장관상)’을, 최문권(인천)·서정석(대전) 씨가 ‘자립상(안전행정부장관상)’을 받았다.

구서정(대구)·이영립(제주) 씨

는 ‘가화상(여성가족부장관상)’, 강상식(서울) 씨는 ‘특별상(한국지체장애인의협회 중앙회장상)’을 수상했다.

시상식 후 대회 참가자들은 만찬과 초청가수의 공연을 즐겼으며 대회 이튿날에는 문화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해 N서울타워를 방문했다.

한편 지장협 김광환 중앙회장은 대회사로 통해 “중증장애를 가진 배우자의 손과 발이 되어주며 살아가는 많은 분들의 모습에 감동을 받았다”며 “앞으로도 서로를 향한 견고한 사랑으로 행복한 삶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2013 전국지체장애인의체육대회’ 개최



‘2013 전국지체장애인의체육대회’에서 진행된 박터트리기 경기 모습.

10월 8일 우천 속에서도 전국 1만여 장애인들이 ‘2013 전국지체장애인의체육대회’가 열린 독서한강공원을 가득 메웠다.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의협회(중앙회장 김광환, 이하 지장협) 주최로 열린 이날 대회에는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조향현 회장, 대한장애인체육회 장준배 전 부회장,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우창윤 부회장 등도 자리해 대회 개최를 축하했다.

지장협 김광환 중앙회장은 대회사로 통해 “이번 대회에서 그동안 갖고 있던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선의의 경쟁을 펼치며 좋은 추억을 만들고 돌아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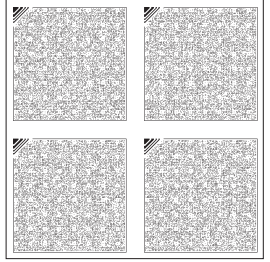
이어 “장애인 복지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모두가 힘을 모아 위대한 지장협을 만들어 나가자”고 밝혔다.

이날 대회에 출전한 장애인들은 육상 400m 릴레이, 박터트리기, 풍선기둥세우기, 협동 원반공 튀기기, 과녁게임 등 총 5종목에서 열전을 벌였다.

대회 결과 종합우승은 충청남도지체장애인의협회 가 차지했다. 종합 2위와 3위는 각각 충청북도지체장애인의협회와 서울특별시지체장애인의협회에 돌아갔다.

한편 이날 대회장에는 장애인 생활체육 상담 및 체력 부스가 마련돼 눈길을 모았다.

〈12~13면에 계속〉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전체 심사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장애인이 조기에 장애인 등록을 마치고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연금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적기에 받을 수 있어 장애인 편의도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복지부는 앞으로 장애인 등록단계에서부터 장애인의 복지욕구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연계지원체계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장애등록 구비서류 대신 발급해드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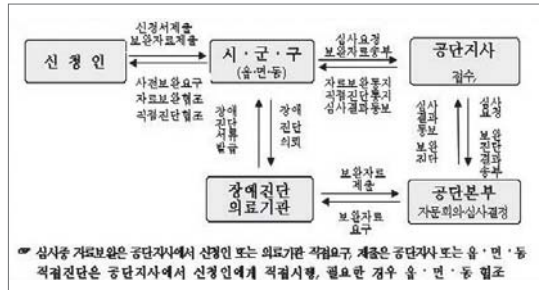
연금공단 장애등급심사자료 직접확보서비스 확대

장애인 등록시 구비서류 발급을 위해 여러 의료기관을 찾아다니던 장애인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장애등급심사과정에서 장애인의 각종 진료기록 발급을 대행해주는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심사자료 직접확보서비스를 내년 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9월 16일 밝혔다.

현재는 장애인이 의료기관이 발급한 장애진단서 등 각종 구비서류를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국민연금공단이 서류를 넘겨받아 신청인의 장애유형과 등급을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자료 : 보건복지부)

이 의료기관을 직접 찾아다니며 진료기록을 발급받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닌데다 발급받아야 할 서류가 많을 경우 그 비용도 만만치 않다.

어렵사리 서류를 발급받아 제

출해도 일부 서류가 미비할 경우 다시 보완해서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심사기간이 길어져 결국 장애인 등록은 늦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현재 최종

증장애인에 한해 극히 선별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던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심사자료 직접확보서비스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처음 서류를 제출한 후 자료가 미비해 보완이 필요한 경우 최종증장애인이 아니더라도 보완서류 발급을 위해 또다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단의 심사자료 직접 확보로 장애인의 진료 기록 중 심사에 필요한 자료만을 공단이 선택적으로 발급받아 심사에 활용함으로써 장애인의 불편은 물론 서류 발급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크게

복지부, 복지급여 현장조사 전담부서 신설

복지급여조사담당관 설치...재정누수방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부정수급, 보조금 부정수령 등 복지재정누수 차단 활동 강화를 위해 복지급여 현장조사 전담부서를 신설했다.

9월 26일부터 공포·시행되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차관 직속 부서인 감사관 소속으로 '복지급여조사담당관'을 설치해 복지급여에 대한 현장조사 업무를 전담하도록 했다.

'복지급여조사담당관'은 개별 복지사업별로 각각 실시되고 있는 현장조사 외에 복지부 차원의 종합적, 집중적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조직개편과 더불어

어 국무조정실에 설치된 '복지사업 부정수급 척결 TF'와 함께 각 사업별 대책을 검토, 수립 중에 있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경우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동 활용을 통해 수급관리의 정확성을 제고한다. 수급자격이 중지되면 각종 급여, 서비스 지급이 자동 중지되도록 하고 지자체도 상시적으로 복지대상자의 소득, 재산 등을 확인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산시스템 기능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2천만원 이하 이자소득도 개인 소득인정액 산정에 반영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전월세, 출입국, 건강보험, 연말정산 등 복지대상자의 소득 및 부

사망의 심사 정보 등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보연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도 사전심사제 도입과 처벌 강화 등을 통해 바우처카드 부정사용을 차단한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인력 간 답합 등의 경우 이용자에 대해서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고 제공인력에 대해서는 바우처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자격상실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부정행위 빈도가 높은 제공기관과 제공인력의 결제 건에 대해 '비용 지급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해 실제 서비스 시간과 바우처카드 결제시간의 불일치를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축소 없다”

국토부, 도로공사 연구용역 논란 해명

국토교통부는 장애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축소에 대해 검토한 바가 없다고 10월 4일 해명했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은 한국도로공사가 연구용역을 통

로 증가했으나 이러한 공익 서비스비용에 대한 정부예산이 제대로 보전되지 않아 재무부담이 가중되어 전락 수 및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1997년부터 장애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즉각 성명 발표해 반대 입장 표명

해 현행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심 의원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의 점진적 확대에 따라 재무부담이 가중되어 현행 감면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위해 국토연구원에 '통행료 감면제도 성과분석 및 제도정비 방안 연구'를 의뢰했다.

연구자료는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액이 2008년 2055억원에서 2012년 2685억원으

로 차량에 대해 50% 할인해 주고 있는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제도의 경우 여가 목적 통행이 많아지고 있고 실제 장애인 가구의 자가용 소유비율이 낮아 감면에 따른 실효성이 낮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편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축소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1987년 9월 1일 창간 월간 새보람 제249호 2013년 10월 31일

회 장 · 발행인 / 김광환 편집장 / 오창석 기자 / 김금주 발행처 / (사)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3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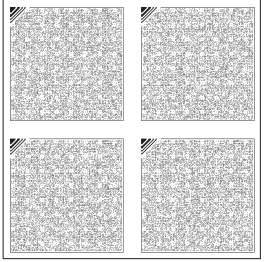
등록번호 / 영등포 라 00280

홈페이지 http://www.kappd.or.kr E-mail : kappd@kappd.or.kr

대표전화 : (02)796-4280 FAX : (02)796-4281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소리로 읽는 새보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진행

기초연금 논란에 가려진 장애인제 현안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630곳의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사상 최대 규모로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10월 14, 15, 17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사퇴로 이영찬 차관이 자리를 지킨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기초연금 정책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으며 '기초연금 야당 의원 발언 내용 문건'이 등장하면서 파행을 빚기도 했다.

사실상 기초연금 논란에 가려 장애인제 현안에 대한 질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가운데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장애인제 하락으로 막막함을 느끼는 장애인들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새누리당 신

경림 의원은 열악한 장애인전문보육 인프라에 대해 지적했다.

■ 장애인제 하락으로 막막한 장애인들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10월 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7월 장애인제 하락에 불만을 품고 주민자치센터를 찾아 자해 소동을 벌이다 사망한 장애인 A씨를 언급하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씨는 월 생계급여 46만여원과 장애인제 3만원을 받으며 생활하던 기초생활수급자로 지난 5월 장애인제 심사에서 장애인제 4급에서 6급으로 하락했다. 이를 비판한 A씨는 자해 끝에 결국 자살을 선택했다.

김 의원은 "등급하락으로 축소된 A씨의 지원 규모는 3만원인데 A씨가 3만원 때문에 자살을 선택 했었다"며 "등급하락을 통보받는 과정에서 상실감과 삶에 대한 막막함을 느꼈기 때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제가 하락한 이유와 지원 변화에 대해 정확히 알았다면 A씨가 자살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국가가 해야 할 의무"라고 지적했다.

이에 복지부 이영찬 차관은 "해당 사건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장애인제 재판정 기준완화와 관련해 행정예고 중이며 앞으로 장애인제 심사 기준을 객관적이고 형평성 있게 보

완하고 변화에 대해 장애인들에게 충분히 알리겠다"고 답했다.

■ 열악한 장애인전문보육 인프라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은 10월 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장애인보육시설 확충과 다양한 치료 서비스 확대를 촉구했다.

신 의원은 보건복지부를 통해 전국 227개 시·군·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122곳이나 되는 지자체에 장애인전문보육시설이 부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도별 전문보육시설 미설치 지자체 비율은 강원도가 77.8%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서울 72%, 경북 70%, 경남 61.1%, 인

천 60%, 전남 59.1% 순이었다.

무상보육시대가 도래하면서 보육서비스가 강화됐지만 아직까지 장애인전문보육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셈이다.

더욱이 전문보육시설이 없는 경우 통합보육시설 또는 일반보육시설에도 장애아를 맡길 수 있지만 장애아를 보육 중인 시설이 전무한 시·군·구가 28곳이나 됐다.

신 의원은 "아직까지 장애아동을 위한 전문보육시설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은 무상교육 시대에 드리워진 어두운 단면"이라며 "농어촌 지역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행 제도상 장애아동 9명이 있어야 치료사가 지원되는데 장애인 치료서비스 기준 강화가 필요하다"며 "지원조건을 완화하거나 통합지역별로 치료사를 배치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복지부 이영찬 차관은 "취약지역에 장애인전문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원칙적으로는 치료사 지원이 9인 기준이지만 5인이더라도 필요한 곳에 치료사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칼럼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기획행정부 송경주 부장

누에는 나비목에 속하는 곤충이다. 알에서 깨어난 누에가 자라 번데기가 될 때 제 몸을 보호하기 위하여 실을 토해 제 몸 바깥을 둘러싸는 고치를 짓는다. 누에는 번데기가 나방으로 변할 때 고치를 뚫고 밖으로 나온다.

사람도 누에처럼 각자 고치와 같은 보호막인 껍질을 만든다. 이 껍질은 기득권일 수도 있고 가치관일 수도 있다. 일생을 통해 단단한 껍질을 한번 만들어 그 속에서 내내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껍질을 만들었다가 깨고 새로운 껍질을 만드는 과정을 여러 차례 반복하는 사람도 있다.

애벌레가 껍질을 깨어 날아가듯...

껍질 속에서 번데기처럼 살려면 모를까 껍질을 깨고 나와야 나방처럼 날개를 달고 날 수 있다.

껍질 중에서 가장 깨기 어려운 것이 '한계'라는 정신적 고정관념이다. 이 한계라는 껍질이 사람들의 용기를 삼켜버리고 대신 두려움과 나약함을 안겨준다. 스스로 만든 고치에 갇혀 날지 못하고 번데기로 살아가게 붙잡는 것이다.

기득권을 포기하고 불확실한 미래에 자신을 던지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그 자리가 제공하는 기득권이란 달콤한 것이다. 기득권을 포기했을 때 겪을 사회적 소외감과 불편함뿐만 아니라 수입의 안정성에 대한 불안감이 항상 발목을 붙잡는 것이다. 직장인들은 그래서 옮겨갈 자리를 미리 확보하지 못하면 괴로움을 참아가며 기존 자리에 연연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할 진대 우리네 모습은 어떠한지 한 번 생각해봐도 할 일이다. 1989년 설립되어 현

재까지 장애인당사자들의를 주창하며 17개 시·도협회, 231개 시·군·지회, 20개 장애인복지관, 20개 직업재활시설 등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를 어느 단체에 비교할 수 있을까?

그렇지만 한국지체장애인협회도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서로 포기하지 않으려고 계속 껍질 속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닌지 각자 뒤우쳐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하다못해 지방에서나 서울에서나 서로 지금의 자리



를 유지하기 위해 장애인복지에 뒤로 한 채 자리에 연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시 그러한 모습이 보인다면 서로에게 깨우침을 주자.

기존에 유지하던 자리를 고수하며 그것에 연연하는 애벌레보다는 껍질을 깨고 나와 진정한 장애인당사자들의를 위해 날아보는 건 어떨까?

장애인용 경사로가 불법 점용물?

편의증진법 · 도로법 서로 모순...도로법 일부 개정안 발의

휠체어 이용 장애인인 A씨는 대구시 변화가에 위치한 상점을 찾았다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돌아야 했다. 상점 앞에 설치되어 있던 경사로가 철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는 지난 2월 이런 A씨의 상담자문 요청을 받고 해당구청에 문의했다.

그러나 해당구청에서는 “도로점용료를 내고 경사로를 설치한 곳과 도로점용료를 내지 않고 사용하는 곳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4개 상점 앞에 설치되어 있던 경사로를 모두 철거했다”는 답변을 내놨다.

현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

애인이 시설물 접근·이용에 있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도 판매시설 등의 주출입구에 장애인 등의 출입편의를 위한 경사로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도로법’ 제38조에는 도로 점용 물건·시설물을 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는 도로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시설 종류에 경사로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때문에 사업주가 장애인용 경사로를 설치해도 지자체는 ‘도로법’을 적용해 도로 점용허가

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사로를 불법 점용물로 간주, 철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의원은 9월 23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장추련과 공동으로 ‘도로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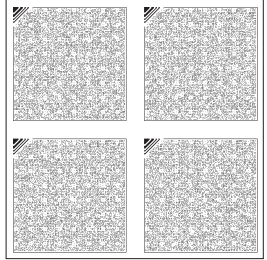
개정안은 경사로 등의 편의시설에 도로 점용료를 면제해 편

의시설 설치시 도로 점용허가를 받도록 유도하고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활성화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모순된 상황을 바꾸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장애인 편의가 도로관리 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추련 박경영희 사무국장은 “장애인 등 이동약자는 식당 앞

소리로 읽는 새보람



에서 어떤 음식을 먹을까를 고민하기 보다 경사로가 있는지부터 확인한다”며 “장애인 편의증진에 있어 경사로가 당연히 설치되어야함에도 이것이 불법이라 철거하는 놀라운 사실을 접했다”고 말했다.



9월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도로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모습. ©박원석 의원실

시각장애인 차별하는 모바일 뱅킹 서비스

국내 대표 은행 9곳 중 4곳 서비스 이용 어려워

시각장애인들이 국내 주요 은행의 모바일 뱅킹 애플리케이션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회장 최동익) 부설 한국웹 접근성평가센터는 9월 KB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시티은행, 신한은행, 외환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국내 대표 은행 9곳을 대상으로 시각장애인의 모바일 뱅킹 서비스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모바일 뱅킹의 주요 서비스인 로그인, 거래내역 조회, 계좌이체, 공인인증서 설치, 이벤트 정보 확인 등 5개 서비스에 걸쳐 이루어졌다.

그 결과 5개 서비스 중 단 하나의 서비스도 이용할 수 없는 은행이 기업은행, 농협은행, 외환은행, 우리은행 등 4곳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농협은행과 외환은

행, 우리은행은 시각장애인 메뉴조차 인지할 수 없었다.

기업은행은 보안 키패드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으나 키패드가 음성인식기능으로 인지되지 않아 로그인이 필요한 회원 서비스는 전혀 이용할 수 없었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은 5개 서비스 모두 이용할 수 있었으나 실제 장애인의 사용 편의성에 대한 체감도는 그리 높지 않았다.

한국웹 접근성평가센터 강완식 소장은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시행된지 5년이 지났지만 사이버 공간에서 소리 없는 차별은 여전히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실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들은 시각장애인 고객 불편함이 없도록 모바일 접근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적장애인 운전자보험 가입 거절은 차별

인권위, 보험사 대표 및 금융위 위원장에 시정 권고

지적장애가 있고 정신과 처방약을 복용했다는 이유로 운전자보험 가입을 거절한 것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이하 인권위)는 피보험자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장애와 정신과 처방약 복용 여부만으로 보험가입을 거절한 보험사 대표와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장애인 차별 관행 시정을 권고했다고 10월 7일 밝혔다.

박 모(남, 21세) 씨는 “운전자보험 상담을 받았는데 해당 보험사에서 지적장애에다 정신과 처방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했다”며 지난 5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해당 보험사는 진정인의 장애와 보험사고 발생률에 대한 구체적 계약심사를 하지도 않고 운전자보험 가입을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 및 제17조에서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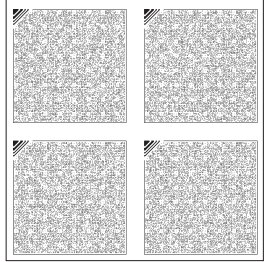
보험회사는 검증된 통계 또는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자료 등 합리적인 근거, 피보험자의 개별적

인 장애상태와 판단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험인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뜻이다.

인권위는 해당 보험사 대표에게 진정인에 대한 보험계약 심사권 재심사, 보험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직원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 인권위가 마련한 ‘장애인 보험차별 개선 위한 가이드라인’ 취지에 맞는 세부지침 및 심사절차 마련 등을 권고했다.

또한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는 ‘보험업법’ 제97조를 위반한 해당 보험사 대표에게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취하고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했다.

소리로 읽는 새보람



너무 강제적이고 폭력적이었다고 전했다.

또한 “정신병원은 마음대로 약물을 투여하고 면접교섭권도 없으며 변호사도 선임할 수 없는 곳”이라며 “감옥보다 무서운 곳이 정신병원”이라고 아픔을 토로했다.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유동욱 사무관은 “강제입원과 관련해 중립성을 갖는 제3의 기관이 심사하는 것이 이상적이라 판단되지만 현실적 제약이 따른다”며 “성년후견인제가 도입됐고 이를 활용해 정신보건법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민법이 개정되고 인권위가 성년후견제를 정신보건법에 반영할 것을 권고한바 있다”며 “이를 반영해 보호의무자 순서를 후견인, 부양의무자 순으로 개정했다”고 덧붙였다.

한국장애인개발원

경영본부장에 이광원 씨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변용찬)은 10월 16일 이광원(51) 씨를 신임 경영본부장으로 임명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지난



한국장애인개발원 이광원 신임 경영본부장.

8월 27일부터 9월 17일까지 경영본부장을 공개모집하고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10월 8일 홈페이지를 통해 최종합격자를 발표했다.

이 신임 경영본부장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교육학을 전공, 삼육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한국적수장애인협회 이사, 제18대 국회 정하균 의원실 선임보좌관, 사회적기업 이

지무브 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또한 ‘자립생활 프로그램 참여기간이 중증 지적장애인의 자기효능감과 내외통제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의 책임자로 활동하는 등 장애인복지의 다양한 현장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이 신임 경영본부장은 앞으로 2년 동안 재임하게 된다.

한편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실장에는 청와대 공보비서실 국장, 국가인권위원회 교육본부장 등을 역임한 나영희(56) 씨가 임용됐다.

정신보건법 개정안 재검토 필요성 제기

토론회 개최... “인권에 기반을 둔 제도 필요”

입법 발의를 앞두고 있는 정신보건법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바람직한 개정방향을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정신장애인지역사회생존권연대는 10월 2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정신보건법 개정안,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권리보장 가능한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 5월 정신장애인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되어 왔다.

정신장애인지역사회생존권연대는 지난 7월 기자회견을 열고 정신보건법 개정안 반대를 촉구하기도 했지만 복지부는 정신보건법 개정안 재검토 입장을 사실상 거부한바 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국정신장애연대 권오용 사무총장은 정신장애인의 강제입원 사례를 들며 “정신보건법의 가장 큰 문제는 강제입원으로 이는 정신장애인의 의사결정능력을 동등하게 인정하고 의사결정을 위한 조력을



10월 2일 ‘정신보건법 개정안,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권리보장 가능한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받을 수 있도록 한 장애인권리협약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인권에 반하는 법률을 고칠 의무가 있다”며 “인간의 존엄성과 자기결정권이 보장되는 자유로운 진료와 보호, 차별금지, 지역사회의 거주와 통합의 권리가 보장되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톨릭대학교 이용표 교수도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지만 반인권적 강제입원이 보편화 되어 있고 정신병상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개선안이 없다”며 “정신보건법 개정안이 누굴 위한 것인지 다시 한 번 돌

아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성재 이사 역시 “정신장애인의 강제입원이 큰 문제인데 20여년 동안 이에 대한 논의를 반복할 뿐 달라진 건 없다”며 “환자의 입원 여부를 판단할 때 제3의 기관이 심사한다면 강제입원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김락우 대표는 “정신질환자와 관련된 사항을 결정하는데 정작 당사자는 빠져 있다”며 “법이 악용되어 장기입원으로 이어지고 법이 당사자의 사회참여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입법과정부

장애 인구 고령화 현상 나타나

장애인 10명 가운데 4명은 노인

인구의 고령화와 함께 장애인 인구도 고령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장애노인의 실태와 과제’에 대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장애노인은 2005년 32.5%, 2008년 36.1%, 2011년 38.8%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공공보건의 개선, 의료기술의 발전 등으로 장애인들의 수명이 증가하고 장애가 노년기에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장애노인의 장애발생 시기는 노년기(60세 이상) 58.7%, 청장년기(19~59세) 33.1%, 발달기(18세 이하) 8.2%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노인의 주된 장애유형은 지체장애가 51.7%로 가장 많고 청각장애 16.3%, 뇌병변장애 14.5%, 시각장애 11.2% 순이었다.

장애정도를 나타내는 장애등급의 경우 4~6급인 중증(67.7%)이 1~3급인 중증(32.4%)보다 많았으나 일상생활에서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장애노인은 31.0%로 조사됐다.

교통수단 이용을 제외한 전화 사용, 물건사기, 식사준비, 빨래하기 등 수단적 일상생활동작의 완전자립률은 장애노인(70%)이 전체노인(91~95%)에 비해 20% 정도 낮았다. 혼자 외출이 불가능

한 장애노인은 18%로 나타났다.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복지욕구를 조사한 결과 소독보장이 38.2%로 가장 높았으나 장애노인의 경우 의료보장 욕구가 41.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노인복지사업과 장애인복지사업간 연계망을 구축하고 장애특성과 노인특성을 모두 고려한 장애인 통합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애노인의 장애발생이 노년기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노년기의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재활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한 장애발생 예방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어르신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어요!

복지부 운영 앱 탑재된 'T실버서비스'

보건복지 · 응급의료정보 등 제공

모바일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도 스마트폰을 통해 보건복지 · 응급의료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와 SK텔레콤(대표이사 하성민)은 9월

16일 '스마트실버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스마트실버 지원사업'은 어

르신들이 편리한 스마트기기 사용 환경 속에서 보건복지 앱을 통해 꼭 필요하고 유용한 보건복지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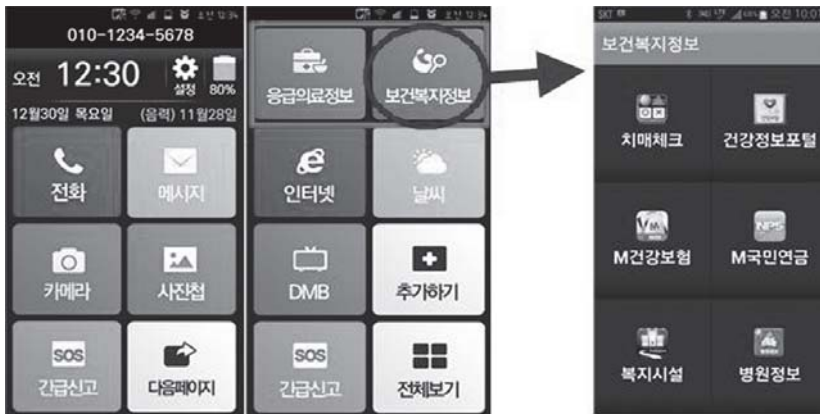
이번 협약으로 SK텔레콤은 스마트폰 초기화면에서 쉽고 편리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디자인한 'T실버서비스'를 출시했다.

'T실버서비스'에는 응급의료정보, 치매체크, 건강정보포털, M건강보험, M국민연금, 병원정

보, 복지시설 등 보건복지부에서 개발, 운영해왔던 앱 7개가 탑재되어 있다.

보건복지부와 SK텔레콤은 'T실버서비스'를 시작으로 보건복지정보와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을 통한 국민 맞춤형 스마트복지 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T실버서비스'는 SK텔레콤 대리점에서 설치 가능하며 'T스토어'와 '구글 Play Store'에서도 무료로 내려 받을 수 있다.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보건복지 · 응급의료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디자인된 'T실버서비스'.

찾아가는 장애인

가족 · 장수사진 촬영서비스

꿈샘아트센터 이동스튜디오 운영...10개 지역 순회



꿈샘아트센터가 10개 지역을 순회하며 장애인 가족 · 장수사진 촬영 서비스를 실시한다.

장애인 사진 · 영상촬영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꿈샘아트센터'가 이동스튜디오 운영을 통한 장애인 가족 · 장수사진 촬영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장 김광환, 이하 지장협)는 지난 8월 장애인 사진 · 영상 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해 '꿈샘아트센터'를 개소하고 제1기 교육생을 모집, 이론 및 실습 교육을 진행해오고 있다.

'꿈샘아트센터' 제1기 교

육생들이 함께하는 이동스튜디오는 올해 말까지 전국 10개 지역을 순회하며 서비스를 제공한다.

촬영된 사진은 현장에서 인화, 액자로 제작해 증정되며 사진 촬영시 메이크업 및 의상대여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한편 '꿈샘아트센터' 제2기 교육생 모집은 상시로 진행되며 이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지장협 꿈샘아트센터 운영사업 담당자(☎02-2289-4343)에게 문의하면 된다.

LG유플러스 홈페이지, 웹접근성 개선 작업 마쳐

LG유플러스(부회장 이상철)는 최근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의 규정에 맞춰 자사 홈페이지의 웹접근성 개선 작업을 완료하고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인권포럼으로부터 '웹접근성 인증마크(WA인증마크)'를 획득했다고 9월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각장애인은 낭독 프로그램(스크린 리더)을 이용해 LG유플러스 홈페이지 내 정보에 손쉽게 접근하고 마우스 이용이 어려운 지체장애인은도 키보드만으로 홈페이지 안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됐다. 가독성이 높아져 저시력자와 고령자들도

또한 콘텐츠 이용이 쉬워졌다.

LG유플러스 커뮤니케이션담당 김대영 e마케팅팀장은 "앞으로 장애인과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은 물론 고객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며 진정한 고객감동 서비스를 실현하는데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30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폐막

36개 종목에 장애인 367명 참가...총 120명 입상

'제30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가 9월 13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의 폐막식을 끝으로 4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대회에는 정규직종 20개, 시범직종 7개, 레저 및 생활기능직종 9개 등 총 36개 종목에 16개 시 · 도 장애인 367명이 참가해 마음껏 기량을 펼쳐보였다. 그 결과 가구제작 · 귀금속공

예 등 정규직종에서는 78명, 보석가공 · 번역 등 시범직종에서는 18명, 그림 · 한지공예 등 레저 및 생활기능직종에서는 24명이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등을 수상했다.

입상자에게는 메달과 함께 상금이 수여됐으며 해당 직종 국가기술자격 기능사 필기와 실기시험 면제 혜택도 주어졌다.

대회를 주관한 고용노동부 방

하남 장관은 "장애에도 자신의 꿈을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선수들로부터 희망을 봤다"며 "국제적으로도 높은 기능 수준을 자랑하는 우리나라 장애인들이 더 많은 고용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번 대회 기간에는 40여개의 기업이 참여한 장애인재용박람회도 개최됐다.

지장협 시·도협회장 연찬회 개최

협회 발전방향 논의 및 화합의 시간 가져



지장협 김광환 중앙회장이 '2013년도 시·도협회장 연찬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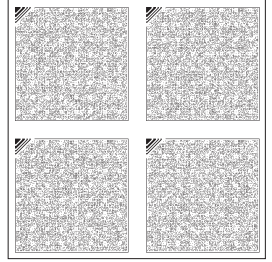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장 김광환, 이하 지장협)의 정체성 및 비전 확립을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협회장 부형중, 이하 제주협회)는 9월 24일부터 25일까지 탐라복지관에서 '2013년도 시·도협회장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찬회에 참석한 김광환 중앙회장과 전국 17개 시·도협회장은 간담회를 통해 협회의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한동후 박사의 '리더들의 삶의 지혜'를 주제로 한 특

소리로 읽는 새보람



강, 조직력 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화합을 다졌다.

김광환 중앙회장은 "장애인 당사자주의의 실현이라는 지장협의 창립정신을 이어받아 지장협의 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앞으로 장애인 복지 향상을 목표로 모두가 진정성과 열정을 갖고 일하며 튼튼한 지장협을 만들어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연찬회는 제주특별자치도가 후원했다.

'제21회 서울특별시장애인한마음체육대회' 성황 서울시 25개구 장애인 3500여명 참가

서울특별시지체장애인협회(회장 손영호, 이하 서울협회)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가 후원한 '제21회 서울특별시장애인한마음체육대회'가 10월 16일 잠원한강공원 트랙구장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에는 서울협회 산하 25개 구 지회 회원 3500여명이 참가했으며 지장협 김광환 회장을 비롯한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조항현 회장, 서울시의회 강희태·고만규 의원, 송파구 박춘희 구청장이 참석해 대회 개최를 축하했다.

대회 참가자들은 게이트볼, 줄다리기, 족구, 척사대회, 단체줄넘기, 휠체어달리기, 팔씨름 등 7종목에서 기량을 겨뤘다.

그 결과 송파구가 3년 연속 중



'제21회 서울특별시장애인한마음체육대회'에 참가 선수들이 도열해 있는 모습.

합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2등과 3등은 각각 영등포구와 노원구가 차지했고 질서상은 광진구, 화합상은 동대문구에 주어졌다.

한편 이날 이벤트 경기로 진행된 '쌀들기' 게임은 참가자들에

게 큰 관심을 받았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액티피아 메디칼의 '휠체어 수리 서비스', 꿈샘아트센터의 '장애인 가족·장수사진 촬영 서비스' 등이 실시돼 눈길을 끌었다.

'제2회 희망 걸음 걷기대회' 열려



10월 12일 달성보에서 제2회 희망 걸음 걷기대회가 열리고 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걸으며 서로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는 의미 있는 대회가 열렸다.

대구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달성군지회(지회장 김용환, 이하 달성군지회)는 10월 12일 달성보에서 '제2회 희망 걸음 걷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는 장애인과 지역 주민 500여명이 참가

했으며 김문오 달성군수, 배사돌 달성군의회 의장, 박성태 대구시의회 의원 등이 참석해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달성군지회 김용환 지회장은 "완전한 가을 날씨 속에 많은 분들이 대회에 참가해 기쁘게 생각한다"며 "매년 열리는 희망 걸음 걷기대회에 지역 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장애체험 통해 장애인 불편 알게 됐어요"

대구센터, 초등학생 대상 장애체험교실 실시

지체장애인의시설대구지원센터(센터장 김창환, 이하 대구센터)는 9월 24일부터 25일까지 동대구초등학교 학생 500여명을 대상으로 장애체험교실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지체장애, 시각장

애, 청각장애 등 장애유형별 체험으로 진행됐으며 장애인편의 시설을 알기 쉬운 카툰으로 소개하는 전시회도 함께 열렸다.

교육에 참가했던 한 학생은 "체험을 통해 그동안 알지 못했던 장애인들의 불편을 알았다"

고 전했다.

대구센터 관계자는 "장애체험교실은 초등학생들이 장애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장애를 가진 친구들과 허물없이 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교육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장애체험교실 참가 학생이 시각장애 체험을 하고 있다.

‘제10회 대전장애인 한마음대축제’

체육경기 · 공연 등 진행...동구지회 MV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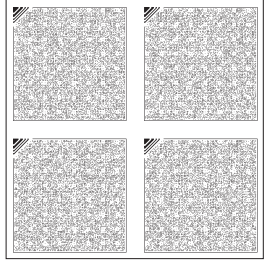
‘제10회 대전장애인 한마음대축제’ 개회식이 진행되고 있다.

대전지역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며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행사가 열렸다.

대전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협회장 윤석연, 이하 대전협회)는 9월 30일 충무체육관에서 대전협회 산하 5개구 지회 76개 분회 장애인과 자원봉사자 등 5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10회 대전장애인 한마음대축제’를 개최했다.

이날 축제는 소방악대와 초청가수의 공연, 체육경기 등으로 진행됐다. 체육경기에서 영예의 MVP는 동구지회가 차지했으며 종합 2위, 3위에는 각각 중구지

소리로 읽는 새보람



회와 유성구지회가 올랐다. 응원상은 서구지회가 받았다.

축제장에는 보장구 수리, 미술치료, 네일아트, 발마사지 등 다양한 체험부스가 마련돼 대회 참가자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대전협회 윤석연 협회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 되는 이번 축제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장애인들의 자립 의욕이 고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제31회 전라북도지체장애인체육대회’ 열려

전북 장애인 1200여명 참가...순창군 종합우승



제31회 전라북도지체장애인체육대회 참가자들이 순창군 공설운동장에 도열해 있다.

전라북도지체장애인협회(협회장 김형곤, 이하 전북협회)는 ‘다함께, 굳세게, 끝까지’를 슬로건으로 9월 27일 순창군 공설운동장에서 ‘제31회 전라북도지체장애인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전북지역 장애인 1200여명이 참가했으며 김완

주 전라북도지사,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 등이 함께했다.

대회 참가자들은 100m 달리기, 400m 계주, 좌식배구, 줄다리기, 게이트볼 경기 등 다양한 종목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 그 결과 순창군이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는 장애인

복지 유공자에 대한 표창장 수여식도 진행됐다.

전북협회 김형곤 협회장은 “이번 대회가 전북지역 지체장애인들의 화합과 우의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며 “장애인들이 함께할 수 있는 기회 마련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충남지체장애인 지도자 · 실무자 한 자리에 역량 및 전문성 강화 위한 교육 실시



‘2013년도 충청남도지체장애인 지도자 및 실무자 교육’에서 지장협 김광환 중앙회장의 특강이 진행되고 있다.

충청남도지체장애인협회(협회장 이진휘, 이하 충남협회) 16개 시·군지회 지도자와 실무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충남협회는 10월 10일부터 11일까지 ‘2013년도 충청남도지체장애인 지도자 및 실무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지장협 김광환 중앙회장과 한국고용안정협회 조향현 회장의 특강, 충남협회 이진휘 협회장의 실무교육이 진행됐다.

충남협회 이진휘 협회장은 “앞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높이고 충남지역 장애인들을 위해 더욱 힘써나가자”고 밝혔다.

군산시지회, 장애인체육관 건립 요구 성과

2015년 준공...장애인평생교육시설도 들어서

전라북도지체장애인협회 군산시지회(지회장 전기수, 이하

군산시지회)를 비롯한 군산 지역 장애인들의 바람대로 현재 군산

시 성덕면에 건립되고 있는 장애인체육관에 장애인평생교육시

설이 들어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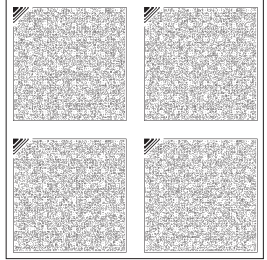
군산시지회와 군산시장애인연합회는 오랫동안 군산지역 장애인들의 편의증진을 위해 장애인체육관 건립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이에 군산시는 2012년 군산시장애인체육관 건립에 착수했으며 최근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조

성을 함께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군산시지회 전기수 지회장은 “군산지역 장애인들의 오랜 숙원이던 장애인체육관과 더불어 장애인평생교육시설까지 생기게 되어 기쁘다”며 “장애인들의 복지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소리로 읽는 새보람



장애인 전문여성활동가 양성 프로젝트

‘3색 테마이야기’ 2차 교육...강의 및 토론 진행



‘비전을 채우다’를 테마로 한 ‘3색 테마이야기’ 2차 교육 모습.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협회장 장재권, 이하 경북협회)는 10월 10일부터 이틀 동안 경주에서 전문여성활동가 양성 프로젝트 ‘3색 테마이야기’ 2차 교육을 실시했다.

‘3색 테마이야기’는 각기 다른 주제의 3차 교육을 통해 전문여성활동가를 발굴·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7월 1차 교육(‘나, 비로소 우리가 되었을 때 희망의 빛을 보다’)이 열린바 있다.

‘비전을 채우다’를 테마로 한 이번 2차 교육에서는 ‘여성장애 인권 및 차별금지법’, ‘동료상담가의 역할’ 등에 대한 강의와

‘전문여성활동가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한 참가자들의 토론이 진행됐다.

경북협회 관계자는 “교육을 통해 양성된 전문여성활동가들은 경북협회 23개 시·군지회의 각종 사업에 참여해 여성장애인들의 권익회복과 복지증진을 위한 활동을 펼치게 된다”고 전했다.

한편 3차 교육(‘세상으로 내딛는 첫 발자국! 여성이여, 세상 앞에 당당히 나서라!’)은 오는 11월 실시될 예정이다.

경산시지회, 장애인근로작업장 건립 촉구

“장애인 보호 받으며 일할 수 있어야”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 경산시지회(지회장 유중호, 이하 경산시지회)는 9월 6일 지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산 지역 장애인근로작업장 건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산시지회는 “현재 전국에 장애인근로작업장 55개소가 있지만 경북에는 안동에 2곳, 포항

에 1곳 등 3개소에 불과하다”며 “경산지역 장애인근로작업장 건립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장애인 일자리 제공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장애인들의 취업 고충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는 못하고 있다”며 “일반 작업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이 보호받으

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애인이 생산하기 적합한 품목 개발과 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여러 종류의 일자리 개발 지원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산시지회는 장애인근로작업장 건립 추진위원회를 결성해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했다.

경기도 장애인 민원상담 실무자 교육 진행

“장애인들에게 양질의 상담서비스 제공할 것”



‘경기도 장애인 민원상담 실무자교육’이 9월 30일 경기문화재단 3층 강의실에서 진행됐다.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협회장 김기호, 이하 경기협회)가 31개 시·군 장애인 민원상담 실무자들의 자질 함양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경기협회는 9월 30일 경기문화재단 3층 강의실에서 ‘경기도 장애인 민원상담 실무자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한국빈곤문제연구소 김희성 센터장의

‘알기 쉬운 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권익위원회 110콜센터 박혜선 팀장의 ‘친절마인드’를 주제로 한 강의로 진행됐다.

경기협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문교육을 통한 장애인 민원상담 실무자들의 역량강화에 힘써 장애인들에게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1회 경상남도 지체장애인 한마음대회’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화합의 장



지장협 김광환 중앙회장이 ‘제1회 경상남도 지체장애인 한마음대회’에 참석한 내외빈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상남도지체장애인협회(협회장 이상식, 이하 경남협회)가 주관한 ‘제1회 경상남도 지체장애인 한마음대회’가 9월 3일 창

원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대회에는 경남지역 장애인 1500여명이 참여했으며 지장협 김광환 중앙회장을 비롯한

김오영 경상남도의회 의장, 고영진 경상남도 교육감 등도 함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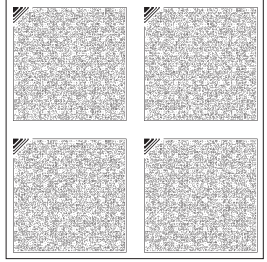
대회는 장애인 복지 유공자에

대한 표창장 수여식, 장애인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게임, 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경남협회 이상식 협회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 되

는 이번 대회를 통해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 의식이 고취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소리로 읽는 새보람



지장협 산하 전국 장애인복지관 화합 도모

‘법인 이사장배 제5회 장애인복지관협의회 체육대회’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지원회(중앙회장 김광환, 이하 지장협) 산하 전국 장애인복지관 직원 간 화합도모 및 정보교류를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지장협 장애인복지관협의회는 9월 28일 공주시민운동장에서 지장협 중앙회와 산하 20개 장애인복지관 직원 7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법인 이사장배 제5회 장애인복지관협의회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는 지장협 김광환 중앙회장, 충남협회 이진환 협회장, 한국고용안정협회 조향현 회장, 이준원 공주시장, 고광철 공주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지장협 김광환 중앙회장은 대회를 통해 “이번 체육대회가 친목도모는 물론 장애인복지관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더욱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회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혼성피구, 축구, 오재미던지기,

단체줄넘기, 800m 릴레이 순으로 진행됐으며 경기장 곳곳에서는 복지관 별 열띤 응원전이 펼쳐져 눈길을 끌었다.

이번 대회 종합 우승은 정읍 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이 차지했으며 종합 2위와 3위는 각각 아산시장애인복지관, 대구광역시달구벌장애인종합복지관

에게 돌아갔다.

응원상은 용인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 최우수선수상은 정읍 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 권하라 선수가 수상했다.



지장협 산하 장애인복지관 임직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장애인 문화 향유 기회 마련

‘제2회 달성군장애인문화축제’ 열려



제2회 달성군장애인문화축제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2회 달성군장애인문화축제’가 10월 11일 300여명의 지역 장애인들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달성군장애인복지관(관장 정

우선, 이하 달성장북)이 주관한 이날 축제에는 김문오 달성군수, 배사돌 달성군의회 의장, 박중석 달성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축제장을 찾은 장애인들은 옷놀이, 투호던지기, 제기차기, 동전던지기 등 다양한 체험행사를 즐겼다.

달성장북 정우선 관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 장애인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었다”며 “장애인을 위한 문화행사 기획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축제에는 달성군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와 달성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주최하고 SPC 행복한 재단, 사니가 후원했다.

장애인 위한 문화예술 공연 열려

‘신나는 예술여행’...다양한 장르의 공연



아산시 재가장애인을 위한 ‘신나는 예술여행’ 공연이 열리고 있다.

아산시장애인복지관(관장 이창호, 이하 아산장북)이 문화예술 공연을 통해 아산시 재가장애인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아산장북은 9월 25일 신정동성당에서 사물놀이, 플루트·아코디언 연주, 마술 공연, 난타공연 등으로 구성된 ‘신나는 예술여행’ 공연을 선보였다.

아산장북 이창호 관장은

“앞으로도 장애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문화예술 관련 공연단 및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신나는 예술여행’ 공연과 관련한 문의는 아산장북 지역사회재활팀(☎041-545-7727)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실시

중증장애인 가정에 경사로 설치

괴산군장애인복지관(관장 정효선, 이하 괴산장북)이 중증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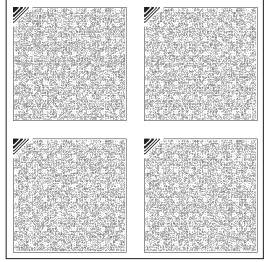
괴산장북은 평소 경사로가 없어 외부 출입에 어려움을 겪었던 중증장애인 가정을 방문해 경사

로 설치 작업을 벌였다.

경사로 설치 서비스를 받은 장애인들은 “경사도가 없어 그동안 외출이 쉽지 않았는데 괴산장북의 도움으로 그동안의 불편이 해소되어 너무 기쁘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괴산장북 정효선 관장은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들이 많다”며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장애인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기꺼이 달려가겠다”고 밝혔다.

소리로 읽는 새보람



‘충남관악단 희망울림’의 찾아가는 음악회

11월까지 진행...장애인 인식 개선에 기여



‘충남관악단 희망울림’이 오성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연을 펼치고 있다.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임대혁, 이하 남부장복)의 ‘충남관악단 희망울림’이 9월 13일 오성초등학교를 찾아 공연을 펼쳤다.

이번 공연은 장애인을 중심으로 구성된 관악단의 연주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찾아가는 음악회’의 일곱 번째 공연이다.

‘충남관악단 희망울림’은 아름다운 선율을 선보여 뜨거운 호응을 얻었으며 각 파트별 악기에 대한 소개로 관악에 대한 학생들

의 흥미를 유도했다.

‘충남관악단 희망울림’은 오는 11월까지 ‘찾아가는 음악회’를 통해 학생과 지역주민들을 만날 예정이다.

한편 ‘충남관악단 희망울림’의 ‘찾아가는 음악회’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남부장복 기획팀(☎ 041-856-7071)으로 문의하면 된다.

문경장복, 지적장애인축구대회 준우승

박경수 선수 최우수 선수 영예

문경시장애인복지관(관장 박종훈, 이하 문경장복)이 9월 12일 ‘제11회 경북장애인복지관협회장기 지적장애인축구대회’에 출전해 준우승 자리에 올랐다.

이번 대회에는 경북지역 10개 복지관에서 500여명의 선수가 참여해 우승기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그 결과 문경장복은 준결승전에서 구미시장애인복지관을 5대 1로 누르고 결승전에 진출했으나 경북장애인복지관에 4대 3으로 패해 준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문경장복 박경수 선수가 최우수 선수로 선정



‘제11회 경북장애인복지관협회장기 지적장애인축구대회’ 준우승을 차지한 문경장복 선수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되는 영광을 안기도 했다.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내년 대회는 문경장복이

추석 앞두고 ‘한마당 잔치’

송편만들기 ·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



‘추석 한마당 잔치’를 치른 의정부장복 이용고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김인숙, 이하 의정부장복)이 추석을 앞두고 이웃 간 훈훈한 정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의정부장복은 9월 10일 복지관 이용고객 150여명을 대상으로 ‘추석 한마당 잔치’를 열었다.

의정부회동로타리클럽, 전국주부교실 의정부지회 주부봉사단이 후원한 이번 행사는 송편만들기, 여성 민요그룹 ‘아리수’의 공연, 장

기자랑 순으로 진행됐다.

의정부회동로타리클럽 회원은 “뜻 깊은 행사에 함께 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행사에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다.

의정부장복 김인숙 관장은 “추석 행사뿐만 아니라 복지관 이용고객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랑의 情 나눔행사’ 개최

장애인에 무료급식 제공 · 선물전달



영천장복은 추석을 앞두고 ‘사랑의 情 나눔행사’를 열었다.

영천시장애인복지관(관장 이제근, 이하 영천장복)은 추석을 앞두고 9월 11일 ‘사랑의 情 나눔행사’를 실시했다.

영천장복은 ‘사랑의 情 나눔행사’를 통해 장애인들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선물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매년 무료급식 행사를 후원하고 있는 (주)동방

노동조합 임직원들이 직접 참여해 몸소 나눔을 실천했다.

영천장복 이제근 관장은 “장애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

져주는 (주)동방노동조합 임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2013 전국지체장애인체육대회’ 이모저모



10월 8일 '2013 전국지체장애인체육대회'가 열린 독섬한강공원을 가득 메운 1만여명의 장애인들.



광운대학교 비마음원단의 흥겨운 식전 공연.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광환 중앙회장의 대회사.



대회 참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광환 중앙회장.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광환 중앙회장과 전국 17개 시·도협회장들의 기념촬영.



정정당당한 승부를 펼칠 것을 다짐하는 선수 선사.



풍선기둥세우기 경기에 임하고 있는 선수들.



과녁게임 시작 전 연습에 열중하고 있는 선수들.



협동 원반공튀기기에 참여하고 있는 선수들.



막상막하의 승부가 펼쳐진 육상 400m 릴레이.



대회 분위기를 뜨겁게 달군 응원전.



봉사활동에 나선 대한적십자사 성동광진봉사관 회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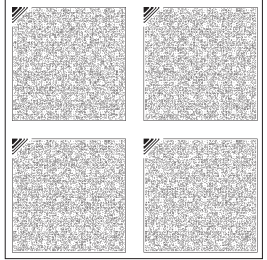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광환 중앙회장으로부터 우승기를 전달받고 있는 충남지체장애인협회.

‘2013 전국중증장애인배우자초청대회’ 장한배우자상 수상 시기

“중증장애인인 그녀는 나에게...”

소리로 읽는 새보람



■ 채찬병 (지체장애 1급, 49세)

■ 믿을 수 없는 사고

어느 날 아침 활기차게 출근한 나는 꿈을 꾸었다.

팔이 잘려나가는 아픔이 느껴지고 팔 길이가 점점 작아지는데 자꾸 손이 아팠다.

너무 아파서 약을 먹고 또 먹었는데 그래도 아프다. 옆에서 잠드신 어머니께 말을 걸어보지만 대답이 없으시다. 손을 내밀어 보아도 닿지 않는다. 몽롱하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깜짝 놀라서 깨어났다.

노모는 걱정스레 바라다보고 새까맣기만 하던 머리카락이 어색하게 희어져있다.

화장실을 가려는데 바지를 내릴 수 없다. ‘아... 꿈인 줄 알았는데.....’

나는 사고를 당했다. 프레스기가 두 손을 먹어버렸다.

그런데 처음 방문한 병원에서 더 위급한 환자가 있다며 수술을 해주지 않아 병원을 옮기는 사이 기계는 나의 팔까지 먹기 시작했다. 팔이 점점 짧아진다.



그때부터이다. 누군가의 손이 나를 따라다니기 시작한 것은.....

그런데 다음 해 겨울날 아침 내 두 손을 가져간 그분은 하나뿐인 남동생을 데려가셨다. ‘정신이 없다. 아~~~꿈 일거야! 사실이 아닐 거야! 두 손마저 없는 난 누구를 의지하고 살란 말인가!’

내 마음은 세상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차다.

■ 나에게 찾아온 행복

그러던 어느 날 지금의 아내를 만났다.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된 그녀는 수줍은 미소를 지을 뿐 나를 제대로 바라보지도 못했다. 나는 그녀를 처음 보는 순간 그녀라면 오래도록 함께 할 수 있겠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뇌병변 1급 장애인으로 몸이 자유롭지 못했다.

그녀의 가족들은 우리의 결혼을 반대했지만 그녀는 그리 오래 고민하지 않았다.

결국 그녀의 가족들도 우리의 결혼을 허락했고 나의 노모와 누이는 어렵사리 우리 두 사람의 결혼을 준비해 주었다.

그렇게 그녀는 나의 손이 되어 주었다. 지인들의 도움으로 우리는 빠르게 부부가 되었다.

그녀는 허니문베이비를 잉태했고 예쁜 공주님을 낳아주었다. 두 팔과 두 다리가 건강한 아이를.....

‘내가 아빠가 되다니.....’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다. 나는 운전면허에 도전하기로 했다. 아이와 아내를 위해 자동차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두 손은 물론 한 팔도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따겠다고 하니 모두 어떻게 할



‘2013 전국중증장애인배우자초청대회’에서 ‘장한배우자상’을 수상한 채찬병 씨와 그의 아내 전순복 씨.

거냐고 물었지만 나는 도전했다. 아내의 발이 되고자 핸들을 돌리고 또 돌렸다. 남아있는 오른쪽 팔로.....

■ 다섯 식구의 가장

아내가 둘째 아이를 가졌다. 의사선생님은 더 이상 아이를 낳는 것은 무리라고 하셨다. 그런데 아내는 수술을 거부했고 결국 위험을 감수하고 둘째 딸을 낳게 되었다.

친정엄마, 시어머니가 수시로 들러도 두 손이 없는 아빠와 몸이 자유롭지 못한 엄마가 연년생인 두 딸을 키우기란 쉽지 않았다. 결국 큰 아이를 친정에 잠시 맡기기로 했다.

그런데 그 사이 아내는 세 번째 아이를 가졌고 이번에도 아내는 목숨을 걸고 아이를 낳았다. 아들이었다.

그녀는 자식을 위해 세 번이나 자신의 생명을 걸었다. 우리는 더 이상 헤어지지 않고 다섯 명이 함께 살기로 했다.

때문에 아내는 더욱 바빠진다. 네 머리를 감기고 등을 밀어준다. 세 아이를 씻기고 입히며 다섯 식구의 밥을 짓는다. 작고 여린 두 손으로 만들어내는 반찬은 내 입맛에 꼭 맞는다. 그렇게 아

이들이 자라 어느덧 학교에 들어갔다.

이제는 온 몸이 자유로운 아이들이 엄마의 가려진 손을 대신하고 힘겨운 다리를 대신해 동생을 돌보고 마트에 간다. 아빠의 머리도 감겨준다.

■ 천사 같은 나의 아내



그런데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아내의 눈물이 늘어난다.

다른 엄마들처럼 아이들과 놀아주지도 여행을 함께 가지도 못해 속상한 것이다.

아이들이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하진 않을까 하는 걱정애 아이들 학교에 가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아내와 나의 걱정과는 달리 아이들은 잘 자라주고 있다.

그렇게 아내와 함께한지 20년이 되어가고 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 우리 부부가 언제까지 나는 아내를 업어 차에 태우고, 아내는 내 입에 음식을 넣어 줄 수 있을지 모른다.

돌아보면 아내를 올리는 날도 적지 않았다. 두 다리가 불편한 아내는 친구가 없었다.

그녀는 문을 열고 누군가와 주기를 기다렸을 것이다. 그런데 나 또한 항상 그녀를 기다리게 했다.

나보다 더 힘든 몸으로 천사 같은 미소를 지어주며 내 손을 잡아준 아내가 없었다면 내가 지금 어엿한 한 집안의 가장이 될 수 있었을까? 아내가 없었다면 나는 지금의 행복을 누리지 못했을 것이다.

세상에 대한 원망을 키우기보다 아빠로서 자식을 키울 수 있게 해준 그녀는 나의 천사다.

고맙고 사랑해!

신체기능 마비 환자 한 해 6만명 증상에 맞는 재활치료 받아야



신체기능 마비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한 해 6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6년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뇌성마비를 제외한 마비 진료환자는 2007년 4만9820명에서 2012년 6만1788명으로 늘어났다.

마비 진료환자는 60~70대 연령층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었으며 특히 80대 이상은 2007년 3768명에 비해 2012년 7430명으로 2배 가량 급증했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재활의학과 김형섭 교수는 “마비는 신경계 질환이 원인이 되어 사지를 포함한 안면, 복부 근육을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와 감각 신경

손상으로 인한 감각이상을 통틀어 말하는 것으로 마비의 원인에 따라 그에 맞는 재활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 마비 원인에 따른 재활치료

1) 뇌졸중

뇌졸중의 재활치료는 각 환자에게 나타나는 뇌졸중의 양상에 따라 치료법이 다르다.

구움장애가 있거나 음식 삼키기가 어려운 경우 혀 주변 근육에 대한 재훈련 및 강화운동을 실시한다.

상지기능의 위약이 있거나 정교한 손동작이 어려울 경우에는 작업치료를 통해 환자에게 훈련을 시킨다.

뇌졸중 환자들에게도 감각 신경 손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흔한데 이 경우에는 뇌졸중 부위가 상지를 비롯한 감각 신경 지배 뇌영역이 손상되었을 때 주로 발생한다.

많은 환자들이 관절의 움직임이 잘 모르기 때문에 사지의 움직임이 우둔해지고 서툴러지는 모습으로 많이 나타나며 행동이 부자연스러워 보인다.

또한 감각 중추 손상에 따른 신경병성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도 많다.

이런 신경병성 통증은 일반 소염진통제로는 조절이 잘되지 않기 때문에 항경련제나 신경병성 통증약으로 치료를 한다.

2) 당뇨병

당뇨병은 혈당만 조절 못하는

내분비 질환뿐만 아니라 혈당 조절 장애로 인해 전신 이상을 초래하는 질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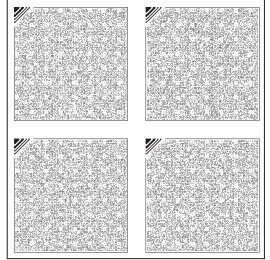
당뇨가 있으면 동맥경화로 인해 심장과 뇌의 손상으로 중추성 마비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말초 신경에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이 상으로 인해 신경이 손상된다.

대부분 당뇨병성 신경병증 환자는 자율신경계의 손상도 동반되어 땀이 잘 나지 않고 감각이 저하되어 상처를 입어도 잘 치료되지 않아 당뇨병성 족부 궤양이 발병하기도 한다.

이런 당뇨병성 신경병증의 환자에서도 주된 호소는 저린 느낌과 감각 이상이다.

이런 환자들에게도 중추성 마비에서 감각 이상과 마찬가지로 항경련제를 주로 투여하며 중추성

소리로 읽는 새보람



감각 신경 마비보다는 약물 치료 효과가 좋은 편이다.

3) 좌골신경통

좌골신경통은 디스크나 퇴행된 뼈가 직접 다리로 가는 신경을 누를 때 발생한다.

대부분의 경우 약물치료나 병변부위 하리에 주사를 주는 치료로 효과를 볼 수 있으나 마비가 급격하게 진행되거나 보존적 치료로 증상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

디스크나 퇴행된 뼈가 다리로 가는 말초 신경을 심하게 압박해 다리의 근육이 마비가 되면 수술을 하더라도 근력 회복이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따라서 운동 신경 마비가 심해서 보행 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치팡이와 같은 보행보조기구를 처방받아 보행시 이용하거나 발목을 잡아주는 보조기가 보행능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건강칼럼



새보람요양병원 제2진료원장
남호균 (한의사)

가을철 급증하는 무릎통증

등산할 때 이것만 기억하세요!

가을의 높고 푸른 하늘을 보고 있으면 산으로 소풍가고 싶은 마음이 절로 솟아난다. 산은 점점 더 붉은 빛을 더하고 산으로 들로 많은 사람들이 단풍구경을 간다. 하지만 어김없이 단풍시즌이 끝나고 나면 가볍게는 무릎내측의 가벼운 점액낭염부터 심하게는 반월판 연골의 손상까지 많은 분들이 무릎 통증을 호소하며 내원한다.

평소에 잘 쓰지 않던 근육을 써서 생기는 단순 근육통인 경우도 많지만 많은 경우는 갑작스런 등산이 원인이 되어 무릎주변의 연부조직이 손상되어 발생하는 통증이다.

등산은 최근에 많은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운동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사실 무릎건강에는 좋지 않은 운동이다. 산을 내려올 때 무릎에 충격이 가해지기 때문

이다.

평지를 걷는 것과는 달리 산을 내려올 때는 중력가속도의 영향으로 체중이 무릎에 주는 충격이 훨씬 크다. 이로 인해 평소에도 등산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았거나 특히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은 어김없이 무릎 통증을 호소하곤 한다.

등산이 무릎에 좋지 않은 운동이긴 하지만 무릎을 보호하는 몇 가지 수칙을 잘 지킨다면 오랫동안 건강하게 등산을 즐길 수 있다.

첫째, 자신에게 맞는 적당한 산행길을 선택한다. 앞으로 국가에서 등산로마다 등급을 매겨 등산의 난이도를 표시하도록 규정이 바뀌는데 욕심을 내기 보다는 본인의 몸 상태에 맞는 코스를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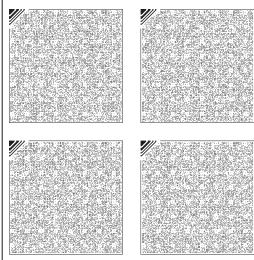
둘째, 등산 전 충분한 스트레칭을 한

다. 보통 달리기나 축구를 하기 전에는 스트레칭을 충분히 하지만 등산을 하기 전에는 스트레칭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등산을 하기 전에도 충분한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좋다. 스트레칭이 몸의 긴장을 풀어주어 무릎에 가는 충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하산에 시간을 충분히 배분해 느린 속도로 내려온다. 보통 등산은 천천히 하는 반면 하산은 빠르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하산시에 가해진 충격으로 무릎이 손상된다. 하산에 충분한 시간을 배정하고 짧은 보폭으로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내려오면 무릎에 가는 충격이 훨씬 줄어든다.

이런 몇 가지 수칙을 지킨다면 무릎에 가는 충격을 최소화하며 깊어가는 단풍을 구경할 수 있을 것이다.

소리로 읽는 새보람



눈으로 듣고, 귀로 보는 장애인영화제



장애인영화제 개막식에서 변승일 조직위원장이 개회사를 전하고 있다.

‘제14회 장애인영화제’가 9월 23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일주일 일정으로 진행됐다.

이번 영화제에서는 경선부문 출품작과 장애인미디어운동, 쟁점, 해외영화초청, 공감 프로젝트 등 총 6개 부문 42편의 영화

가 관객들을 찾았다.

KBS 이선영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개막식은 축하공연, 개회사, 축사, 개막작 상영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개막작으로는 독립영화 감독 이자 PBS(미국 공영방송) 편집·제작자로 활동하고 있는 에

릭 뉴델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그래도 인생은 아름답다(Lives Worth Living)’가 상영됐다.

변승일 조직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영화를 즐기는데 있어 소외받는 장애인을 위해 이번 영화제를 마련했다”며 “영화제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모든 분들, 특

히 비장애인 관람객들께 감사드립니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무부 장애인인권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주디스 휴먼은 영상을 통해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행사에 영상으로나마 한국의 친구들과 인사를 하게되어 기쁘다”며 “행복한 축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이날 개막식에서는 영화배우 구혜선과 이천희가 장애인영화제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한편 올해 장애인영화제 경쟁부문에서는 원호연 감독의 <강

선장>이 대상에 선정됐고 김보미 감독의 <못 다한 이야기>, 김준성 감독의 <불륜>은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어 인권상은 박종혁 감독의 <천사가 되려면>, 신진작가상은 유지영, 장세원, 정혜인 감독의 <시선 너머>, 특별상은 우문기 감독의 <서울유람>이 받았다.

‘2013 장애인문화예술축제’ 열려

10월 10일 서울시청 열린광장에서는 문화예술로 세상과 하나 되는 ‘2013장애인문화예술축제’ 개막식이 진행됐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이번 축제는 국내 최대 규모의 행사로 치러졌다.

특히 이번 축제는 장애인문화예술단체들이 연합해 주최한 최초의 행사로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장애인단체들을 중심으로 문화과거시절, 다이버시티 컬렉션, 전국장애인문화축제 등 다채로운 행사들이 전국에

서 실시됐다.

개막식에서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김양수 회장은 “장애인문화예술이라고 하면 수준이 낮을 거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다”며 “이제 질적 수준도 꾸준히 향상되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고 다양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인문화예술축제의 일환으로 오는 11월 7일에는 제주장애인인권영화제가, 11월 14일에는 사진전이 진행될 예정이다.

‘전국 장애인근로자 문화예술 경연대회’

미술·사진촬영 대회 등 진행



전국 장애인근로자 문화예술 경연대회 참가자와 주최측 주요인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회장 조항현, 이하 장고협)는 9월 26일 어린이 대공원에서 350여명의 장애인과 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장애인근로자 문화예술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경연대회는 문화예술 활동에 소외되어 있는 장애인근로자들을 위해 문화예술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대회에서는 ‘제3회 전국 지적·자폐성장애인 근로자 미술대회’와 ‘제2회 전국 시각장애인 근로자 사진촬영대회’가 동시에 개최됐다.

대회를 주최한 장고협 조항현 회장은 “문화예술활동에 소외되었던 지적·자폐성장애인과 시각장애인들이 이번 대회를 통해 다양한 문화 활동을 즐기며 본인의 삶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꿈샘아트센터 인재양성 Photo & Video 프로젝트

교육생모집(사진 및 영상교육)

모집기간: 8.13.(화) ~ 11.8.(금) 수시모집

교육시간: 1기당 12회 교육 - 1주당 2회 교육(약1달반)

지원자격: 등록장애인, 사진 및 영상 기본지식 습득자

선발기준: 심사단이 적격여부 개별심사 후 선발

(영상 장비 소유자 우대, 소유하지 않아도 지원가능)

교육명: 꿈샘아트센터 사진 및 영상교육

교육내용: 사진교육(사진기초부터 스튜디오 조명 활용까지)

영상교육(영상기초부터 실전까지)

교육기간: 2013. 8. 27 ~ 12. 31 (1기접수완료)

가수제 운영(사진·3기제, 영상·2기제)

모집인원: 1기당 사진교육 최대 15명, 영상교육 최대 5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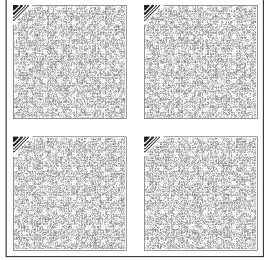
(교육 여건에 따라 인력 조정할 수 있음)

제출서류: 교육생등록신청서, 부(관련 경력 기입)

이메일 접수 batmania@paran.com

문의: 꿈샘아트센터 담당자 02)2289-4343

소리로 읽는 새보람



‘제3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성공리에 막내려

16개 시·도 7400여명 선수 참가...경기도 종합우승

‘다함께, 굳세게, 끝까지’를 슬로건으로 9월 30일부터 대구 일원에서 열린 ‘제3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10월 4일 폐막식을 끝으로 5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대구의 가을 저녁을 화려하게 수놓으며 시작된 이번 대회에는 16개 시·도 740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27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뤘다.

대회결과 경기도가 종합 1위를 차지했으며 대구시가 종합 2위, 서울시가 종합 3위에 올



제3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대구 일원에서 치러졌다.

랐다.

최우수선수상은 육상 여자

100m와 200m 종목에서 1위를

차지한 전민재(전북)에게 돌아갔

다. 전민재는 지난해에도 최우수선수상을 수상한바 있다.

이번 대회에서는 세계신기록 3개, 올림픽신기록 1개, 한국신기록 345개, 대회신기록 35개 등 신기록도 무더기로 쏟아졌다.

특히 지난 대회에서 한국 신기록 3개를 달성하며 잠재력을 인정받았던 수영의 조기성(경기)은 이번 대회에서 세계 신기록을 2개나 수립하며 스타로 떠올랐다.

5관왕 10명, 4관왕 9명, 3관왕 58명 등 많은 선수들이 다관왕

의 영예를 안기도 했다.

장애인 조정의 희망 박준하(충남)는 2관왕에 올라 지난 ‘2013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5위의 아쉬움을 떨쳐냈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는 선수들의 활약 외에도 대회 기간 내내 선수들을 곁을 지켜준 자원봉사자, 선수들에게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준 시민서포터즈의 모습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SK텔레콤배 전국휠체어농구대회’ 개최



‘SK텔레콤배 전국휠체어농구대회’ 2부리그 우승을 차지한 아산힐스파워농구단.

‘SK텔레콤배 전국휠체어농구대회’가 9월 6일부터 9일까지 나흘 동안 울산 동천체육관에서 열렸다.

전국 25개 팀 400여명의 선수가 참가한 이번 대회는 1부리그, 2부리그, 비장애부, 여성부로 나뉘어

행했다.

1부리그에서는 서울시청이 제주와의 결승전에서 53대 52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우승을 차지했다.

2부리그에서는 아산시장애인복

지관 소속 아산힐스파워농구단이 결승전에서 만난 안산팀을 60대 38로 제압하며 지난 2003년 이후 10년 만에 전국대회 우승 자리를 되찾았다.

비장애인부에서는 중부대학교가, 여자부에서는 고양시 레드폭스 휠이 정상에 올랐다.

SK텔레콤 김정수 CSR 실장은 “SK텔레콤배 전국휠체어농구대회는 장애인들이 장애를 뛰어 넘어 농구라는 스포츠를 통해 같이 뛰는 기량을 겨루며 비장애인과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는 의미있는 자리”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과의 동행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개해 나가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대회는 SK텔레콤이 주최하고 대한장애인농구협회가 주관했다.

대한민국체육상 시상식 열려

‘제51회 체육의 날’을 맞아 각종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와 지도자, 체육 발전에 기여한 이들에게 수여되는 대한민국체육상 시상식이 10월 15일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렸다.

이번 시상식에서 대한장애인탁구협회 김경목 선수가 금복상을 수상했다. 군 복무 중 장애인이 된 김경목 선수는

장애자 스포츠’ 등 다수의 저서·역서와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장애인체육발전유공 부문에서는 ‘2012 런던장애인올림픽’에서 금메달과 은메달 각 1개를 획득한 탁구의 김영건, 양궁의 김란숙·정영주 선수 등 3명이 청룡장을 받았다.

또한 ‘2012년 런던장애인올림픽’ 사격에서 금메달 3개

극복상 김경목 선수...특수체육상 김의수 교수

장애인체육발전유공 부문에서는 16명 수훈

1992년부터 2012년까지 장애인올림픽에서 총 12개의 메달을 획득해 국제탁구연맹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는 등 국가의 명예와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바 있다.

서울대학교 김의수 명예교수는 장애인 생활체육 보급과 지도자 교육을 통해 특수체육이 국민체육의 한 영역으로 인식되는데 선구적 역할을 한 공적을 인정받아 ‘특수체육상’을 받았다. 김의수 교수는 ‘장애자체육’, ‘특수체육과

와 동메달 1개의 우수한 성적을 기록한 사격선수단 이상주 코치, 탁구에서 금메달 1개, 은메달 4개, 동메달 4개 등을 획득하며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한 박준영 감독 등 6명이 맹호장을 수상했다.

이외에도 사격의 이유정, 탁구의 조경희 선수가 거상장을, 사격의 박명준 선수가 기린장 수상의 영예를 안았고 육상의 이기학, 배드민턴의 박영희 코치와 이미정·이점숙 선수 등이 포장을 받았다.

대한장애인체육회 3대 회장에 김성일 당선

52표 중 27표 획득...11월 25일 취임식

대한장애인체육회 제3대 회장으로 김성일 후보가 선출됐다.

김성일 후보는 대한장애인체육회 구협회 회장, 대한장애인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바 있으며 현재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성일 후보는 10월 1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3대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 선거’에서 27표를 얻어 신임 회장 당선을 확정지었다.

이날 투표에는 대의원 총 54명 중 52명이 참석했으며 1차 투표에서 과반의 표를 얻은 후

보가 없어 선거관리규정에 의거 1차 투표 1, 2위를 차지한 김성일 후보와 장춘배 후보 간의 재투표가 실시됐다. 그 결과 김성일 후보가 27표, 장춘배 후보가 24표를 얻었다.

김성일 신임 회장은 “제3기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이룩하기

위해 활주로에 섰다”며 “저를 믿어주시는 만큼 안전한 비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제 대한장애인체육회가 환골탈태 할 수 있도록 전 직원들과 힘써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콩고 장애인밴드 '스태프 벤다 빌릴리'

다큐영화 국내에서 개봉돼 화제

콩고 장애인밴드 '스태프 벤다 빌릴리'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영화 '벤다 빌릴리'가 국내에서 개봉돼 화제가 되고 있다.

'스태프 벤다 빌릴리' 밴드는 2004년 결성돼 지난 2010년 칸 영화제에서 다큐영화로 주목받으며 유럽과 미주지역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프랑스 기자가 콩고에서 거리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스태프 벤다 빌릴리' 밴드를 우연히 만나면서 이들의 정식음반이 발매됐고 영화가 제작됐다.

'스태프 벤다 빌릴리' 밴드는 리더이자 보컬인 리키(Ricky Likabu)를 필두로 기타와 보컬 담당 코코(Coco Ngambali), 보컬 담당 테오(Theo Nsituvuidi) · 주 나 나 (Djunana Tanga-



콩고 장애인밴드 '스태프 벤다 빌릴리'. (사진출처 : www.facebook.com/pages/Staff-Benda-Bilili/50607978553)

Suele) · 자디스(Zadis Mbulu Nzungu) · 카밤바(Kabamba Kabose Kasungu), 베이스 담당 폴린(Paulin 'Cavalier' Kiara-Maigi), 사통게(우유 강통에 철사를 끼워 만든 악기)와 보컬 담당

로저(Roger Landu), 드럼과 보컬 담당 쿠바인(Cubain Kabeya), 타악기 담당 랜디(Randy Buda) 등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리더인 리키는 현재 55세로 밴드의 창립 멤버이며 밴드를 유지하는 가장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세발자전거(핸드바이크)를 보장구로 사용하며 기계공이나 재단사로 일을 하거나 나이트클럽 인근에서 담배와 술을 판매하고 있는 그는 종종 골판지를 덮고 거리에서 자기도 하지만 세련된 게 옷을 관리하고 우아한 외모로

공연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코코는 50세로 발표곡 중 상당부분을 작곡했다. 사륜오토바이(일종의 전동휠체어 개념)를 보장구로 사용하고 있는 그는 마을 외곽에 아이들과 함께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지만 충분한 돈을 번 날만 집을 방문한다.

음악성으로 영입된 17세 로저는 사통게라는 악기를 직접 만들어 사용한다. 이 악기는 강통과 나무 철사로 만든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일렉트릭 기타와 함께 솔로부분을 담당하며 밴드의 가장 중요한 연주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스태프 벤다 빌릴리' 밴드는 2010 Songlines 뮤직 어워드에서 최고의 그룹으로 선정됐으며 Glastonbury, WOMAD, Roskilde 등과 같은 큰 규모의 음악 페스티벌에서 공연을 펼치며 음악성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그들의 노래에는 일상생활 이야기와 사건, 빈민가의 이야기 등 진정성 있는 내용이 담겨있다.

SNS로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차량 고발

차량번호 사진 그대로 게재



장애인주차구역에 불법 주차된 차량들. (사진출처 : www.facebook.com/pages/No-Permit-No-Parking/267658756686118)

미국에서 'No Permit No Park(허가받지 않은 차량은 주차할 수 없습니다)' 캠페인이 페이스북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는 알리시아 라이트(38세)라는 한 여성은 위반차량의 사진과 차량번호를 페이스북에 그대로 올리면서도 당당하게 자신의 실명을 사용하고 있다.

그녀는 또 전단지까지 직접 제작해 불법 주차 차량 위에 올려놓고 주차위반에 대한 내용을 위반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단지에는 주차위반에 따른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과 장애인주차구역의 의미 등이 명시되어 있다.

파킨슨병인 그녀는 수년 전 막무가내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운전자에 격앙되어 이러한 캠페인을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그녀가 지지자들과 함께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국의 장애인 운전자의 82%는 주차공간이 없어 자신이 원하는 장소를 방문하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베이징인권포럼,

중국 장애학생의 교육장벽 지적

베이징인권포럼은 중국의 장애 학생에 대한 교육 상태에 대해 지적하며 중국 정부에 정책마련을 권고했다.

중국 교육부에 따르면 장애아동의 28%가 학교에 등록하지 않고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특수교육을 위한 시설과 교사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포럼에서는 이러한 통계를 기반으로 중국 정부에 장애학생 교육에 대한 예산확대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예 샤오웬 사회부총장은 "교육 평등권의 보장은 인권의 문제일 뿐만이 아니라 중화민족의 발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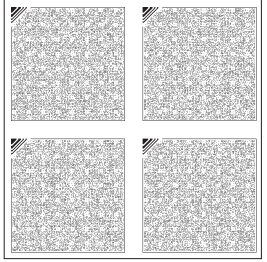
이라며 "교육장벽을 제거한다면 삶의 질이 개선되고 밝은 미래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우하오빈 국제노동기구 프로그램 책임자는 "중국 정부는 고용 및 직업교육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지향적 통합교육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모든 학생들의 학습욕구를 인식하고 충족하는 교육시스템을 마련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해 더욱 많은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베이징인권포럼은 9월 33개국에서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베이징에서 진행됐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I

소리로 읽는 새보람



에 의한 접근성표지도 아닌 제3의 표지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접근성표지가 가지는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건축물이나 시설이 있다”라는 의미를 퇴색시키며 나아가 접근성에 대한 의미를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잡아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차장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차제에 장애인접근성 표지가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인지하고 장애인전용주차장에 표시하는 전용표지를 ISA(ISO7001)나 한국산업표준에 의한 접근성표지(KS DA)를 사용해 주기 바라며, 덧붙여 현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능한 사람들은 지체장애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이 주차를 할 수 있는 제도로 되어 있으므로 전국의 많은 지자체 주차장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체부자유자전용주차장 설치’이라는 표제 대신 ‘장애인전용주차장 설치’라는 표제로 개정해 줄 것을 권고한다.

표준형		
	ISA 또는 ISO 7001	KS DA(Disabled Access)
비표준형		
	경기도 가평군 주차장 조례	경기도 남양주군 주차장 조례
	강원도 삼척시 주차장 조례	경북 예천군 주차장 조례
비표준형		
	강원도 철원 주차장 조례	경기도 평택 주차장 조례

<장애인접근성표지 표준형과 비표준형>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지체장애인의시설증진지원센터

편의증진국장
웅 헌 군

지난호까지는 우리나라와 해외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제도와 운영사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번호부터는 2회에 걸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대해 알아본다.

1. 장애인전용주차 불법주차 현황

연번	연도	단속건수	비고
1	2005	5,216	
2	2006	1,715	집중단속
3	2009	1,869	
4	2010	6,983	집중단속

<출처: 보건복지부>

이 현황은 보건복지부 자료에서 발췌한 것이지만, 특정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특정일시에 집중단속을 통하여 얻은 결과로서 연간 단속현황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캐나다의 한 보고에 의하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차량의 25%가 위반차량이라는 보고가 있다. 우리나라도 개인적으로 파악한 바로는 도 단위의 특정 기초지자체 두 곳에서 2인 1조로 단속하는 매월 건수가 평균 100여건이 넘는 곳이 있다.

시 단위와 군 단위 두 곳에서 단속하는 연간 건수가 1,200건이 넘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전국적으로 기초지자체가 230여 곳임을 감안하면 최소 138,000건 이상이 된다. 전국적으로 하루 378건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한 기초지자체당 하루 1건의 위반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뜻이다.

실질적으로 이보다 더 많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주인을 잃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을 것이라고 본다. 하루에 장애인 378명이 주차를 하지 못해 애로를 겪고 있다는 것이며, 주차를 하지 못해 그만큼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이에 대한 비용분석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위반사례들을 유형화 시킨다면 다음과 같은 수 있을 것이다.

초록색으로 이루어진 장애인 주차표지(이는 주차불가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를 부착하고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것, 노란색으로 이루어진 장애인 주차표지가 있지만 비장애인이 홀로 차를 이용하고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것, 장애인 주차 표지도 없는 차를 가지고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것, 장애인 주차 표지가 있지만 장애인 관련 단체의 차량(직원이거나 시설장이 운전한다)이 물론 그 차량에는 보행상 장애인이 한명도 없는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것, 장애인 가족 중 한사람(비장애인)이 장애인을 탑승시키지도 않고 자신의 일만을 위하여 차를 이용하고 장애인 주차구역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것들로 유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주차가능표지 없이 주차하는 것도 문제지만 보호자 주차가능차량과 단체 또는 시설차량으로 보행상 장애인 탑승하지 않은 채 주차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에 의한 위반사례의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제도의 문제점

1) 장애인자동차표지 관리의 중복

장애인자동차표지는 두 개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하나는 장애인복지법에서 관리하는 「장애인사용자자동차표지」와 편의증진법에서 관리하는 「장애인자동차표지」이다.

그 도입시기나 표지의 명칭, 목적, 내용, 대상, 주체, 이용방법, 위반의 방법과 그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금액 등

구분	장애인복지법	편의증진법
도입 시기	1999.4.1	1998.4.11
표지 명칭	장애인사용자자동차표지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목적	①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경감 또는 조세 감면 등 지원의 편리 - 차량 10부제 적용제외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등 ② 주·정차위반시 제도위주의 단속이 원활화 하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함
발급 내용	①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을 알아 볼 수 있는 표지(법 제39조) ② 보행상 장애가 있을 때 표시(시행규칙 제28조)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능 여부 표시 - 법 제17조 제2항
발급 대상	-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명 - 등록장애인 - 등록장애인 보호자 - 국내거소신고 제외동포 및 외국인으로서 등 특한 외국인 - 차량 대여 및 리스자 - 노인의료복지시설명 - 장애아보육시설명 - 특별교통수단	- 등록장애인 -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발급 주체	- 시·군·구청장	- 국가보훈처장 - 시·군·구청장
주차 가능	- 직접적 언급 없음	- 주차가능 차량만 주차
단속 및 과태료	○ 주차표지의 남용 등 - 법규정 위반하여 대여한 자 - 법정 이외의 자에게 양도한 자 - 부당하게 사용한 자 - 유사 표지·명칭 사용한 자	○ 구역주차위반차량 - 일반차량 - 주차불가 표지차량 - 주차가능 차량이나 보행장애인 미탑승 차량
과태료 금액	- 300만원 이하	- 10만원

모두 다르고 단 하나 표지형태만 동일하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운영하는 부서뿐만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 분들도 혼란스러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만다.

장애인사용자자동차표지는 근본적으로 장애인의 자동차 이용시 경제적부담을 경감하여 그 이용의 편의를 보장하는 것이며 장애인자동차표지는 그 근본 취지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할 수 있으나 여부에 대해 규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그 목적이 다른 형태를 동일하게 운영을 할려고 하니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따라서 이해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차위반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제일 혼란스러워하는 위반 유형은 보호자주차가능차량 중 보행장애인미탑승인체 주차하거나 복지시설 또는 단체차량이 보행장애인 미탑승인체로 주차위반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2) 접근성표지의 문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비용은 편의증진법 시행령에 의하여 주차장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차장법에서는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해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상 부설주차장대수의 2~4%의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가 정하는 비율이상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동 조례에서는 설치율뿐만 아니라 크기, 색상 등의 사양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장애인접근성표지를 전용표지라고 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데 그 모양이 국제접근성표지(ISA-International Symbol of Accessibility, 이 표지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ISO7001로 정하여 사용하고 있음) 또는 기술표준원에서 고시하고 있는 한국산업표준(KS)

법률정보

박신희 (변호사)



Q)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은 어떠한 방식에 따라야 하나요?

A) 민법은 유언에 관해 아래의 다섯 가지 방식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다섯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유언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민법 제1066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스스로 손으로 쓰고 날인하는 방식이다.

자서가 요건이므로 타인에게 대신 필기를 시킨 것은 인정되지 않고 연월일의 경우 일자가 특징이 되어야 하며 연월만 기재하고 일이 기재되지 않은 자필유언증서는 무효다(대법원 2009. 5. 14. 2009다9768).

성명은 그 유언이 누구의 것인가를 특정할 수 있는 것이면 되므로 호나 예명을 쓰는 것도 가능하고 날인은 인장뿐만 아니라 손가락지문 날인(무인)도 가능하나 유언자의 것이 아닌 무인이 있는 경우에는 무효이다(대법원

2007. 10. 25. 2006다12848).

자필증서 유언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또한 유언자가 이를 직접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2) 녹음에 의한 유언(민법 제1067조)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해야 한다.

또한 의사능력이 있는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유언에 참여한 의사가 피성년후견인이 심신이 회복된 상태를 녹음기에 구술하여야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3)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민법 제1068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로 설명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후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는 방식이다.

이 유언은 공증인의 사무소에 서할 수도 있고, 공증인이 유언자의 집이나 병원에 출장을 가서 할 수도 있다.

여기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한다는 것이 어느 정도의 의사표현이 있어야만 충족이 되는 것인가가 간혹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의 문화가 유언을 건강할 때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아니라 유언자의 사망시점에 다다라서 급하게 이루어지는 경

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관해 대법원은 "제3자에 의하여 미리 작성된 유언의 취지가 적혀 있는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고 유언자가 동작이나 한두 마디의 간략한 답변으로 긍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민법 제1086조에 정한 '유언 취지의 구수'라고 보기 어렵지만 공증인이 사전에 전달받은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유언의 취지를 작성한 다음 그 서면에 따라 유증 대상과 수증자에 관하여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하여 유언자가 한 답변을 통하여 유언자의 의사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그 답변이 실질적으로 유언의 취지를 진술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볼 수 있고 유언자의 의사능력이나 유언의 내용, 유언의 전체 경위 등으로 보아 그 답변을 통하여 인정되는 유언취지가 유언자의 진정된 의사에 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언취지의 구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5다75019 판결)"고 하여 공증인이 유언의 내용을 미리 전달 받고 이를 유언자에게 가서 구체적으로 확인한 경우의 유언의 효력을 인정한 바 있다.

(4)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민법 제1069조)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자신의 유언을 적어서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

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을 반드시 자필로 기재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자필로 기재가 된 비밀증서 유언의 경우 다른 요건이 흠결된 경우에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이를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간주하게 된다(민법 제1071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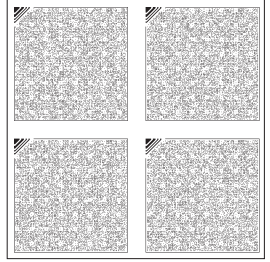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일하게 증인이 필요하지 않은 방식이므로 증인 요건이 결여된 비밀증서 유언이 자필증서 유언으로 간주되어 효력을 인정받는 사례가 있다.

(5)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민법 제1070조)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유언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이다.

이 유언은 다른 방식의 유언을 할 수 없는 급박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고,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

소리로 읽는 새보람



료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검인을 받지 못한 유언은 무효가 되며, 가정법원은 이 검인을 심판으로 하게 된다. 구수증서 유언의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의 경우에도 의사의 서명날인은 요구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유언 당시에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유언자가 유언취지의 확인을 구하는 변호사의 질문에 대하여 고개를 끄덕이거나 "음", "어"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구수증서 유언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6. 3. 9. 2005다57899).

유언은 유언내용에 별다른 조건이 없는 한 유언자의 사망시 효력이 발생하고 자필증서 유언을 제외하고는 모두 증인이 필요한데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환정후견인·유언에 의하여 이익을 받을 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은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유언집행자는 증인이 될 수 있다.

박신희 법률사무소 : ☎ (02)2038-2320

민원상담

정연숙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정책지원부장)



Q) 국민연금 납부하던 중 장애를 당했는데 장애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A) 장애연금은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된 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

가 남아 있는 경우 그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장애연금액을 장애가 남아있을 때 까지 지급합니다.

또한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이 1년 6개월이 경과하여도 완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음 진료일 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심사하여 등급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1년 6개월 경과일 부터 지급합니다.

처음 장애 심사 시에는 1년 6개월 경과 시점에 등급이 인정되지 아니하였으나 그 후에 장애가 악화되어 장애등급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60세 이전에 청구

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심사하여 장애연금을 지급합니다.

Q) 국민연금 가입 중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장애연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사고로 장애연금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 사고와 관련한 장애가 완치된 이후(완치되지 않는 장애의 경우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된 후) 장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와 합의 후 연금을 청구하는 경우, 손해배상금 수령이 확인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

셔야 하며, 공단은 손해배상금의 범위 안에서 일정기간 연금의 지급을 정지한 후 장애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Q) 예전에는 지역의 의사가 장애등급을 진단했는데, 왜 장애인등록 등을 위해 모두 장애등급심사를 받아야 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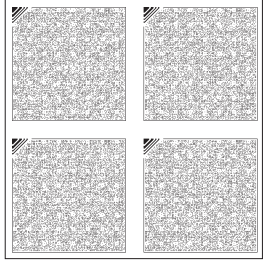
A) 병원에서 장애인단서를 발급받아 읍·면·동 주민 센터에 신청하면 장애인으로 등록되는 종전의 제도는 정확성에 대한 검증 과정이 없습니다. 장애를 판정하는 산재보상보험법 등 다른

제도와 외국의 경우도 의료기관의 장애인단서와 심사구비서류를 근거로 별도 기관에서 장애등급심사를 통해 장애등급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장애등급 심사제도는 정확한 장애인등록체제로 장애인복지 지원을 필요하신 분들께 더 많이 드리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 법령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다수의 전문 의사 등이 회의 형태로 진단의사의 장애인단 결과와 객관적인 심사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장애등급을 심사합니다.

소리로 읽는 새보람



지장협, 직업재활 취업전 교육 실시

현장 채용면접 진행...장애인 취업 성공



장애인표준사업장 (사)해든을 둘러보고 있는 '2013 직업재활 취업전 교육' 참가자들.

중증장애인 구직자들의 성공적 취업을 돕기 위한 교육이 열렸다.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장 김광환, 이하 지장협)는 9월 6일 서울 가산동에 위치한 장애인표준사업장 (사)해든에서 '2013년 직업재활 취업전 교육'을 실시했다.

중증장애인 구직자 10여명이

참가한 이번 교육은 (사)해든 이종수 사무국장의 '취업 전략'에 대한 강의, 장애인 근로자들의 직장생활에 대한 수기 발표, 사업체 견학 등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교육 후 현장에서 채용면접이 진행돼 2명이 취업에 성공했으며 3명이 지원고용 대상으로 선정됐다.

지장협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도 취업전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T 전문가를 꿈꾸는 장애인들의 도전

'제1차 장애인 시스코 네트워킹아카데미' 수료식

IT 분야 해외취업을 향한 장애인들의 도전이 첫 결실을 맺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성규, 이하 공단)이 지난 7월 (주)시스코와 연계해 개설한 '제1차 장애인 시스코 네트워킹아카데미' 1단계 과정 수료식이 9월 26일 열렸다.

이날 수료식에서는 26명의 장애인이 수료증을 받았다.

총 4단계로 진행되는 '제1차 장애인 시스코 네트워킹 아카데미'는 오는 12월 종료되며 모든 과정을 이수한 장애인들은 IT 네트워킹 분야 국제 공인 자격증인 CCNA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다.

공단 관계자는 "CCNA 자격증을 취득하면 일본 ISFnet 등 글로벌 기업과 국내 대기업 취업이 훨씬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많은 장애인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0월 중 '제2차 장애인 시스코 네트워킹아카데미'를 추가 개설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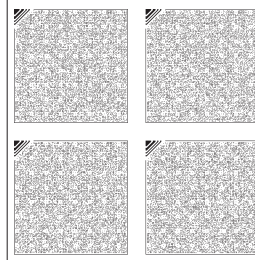


'제1차 장애인 시스코 네트워킹아카데미' 1단계 과정 수료식 모습.

● 취업정보

	업종	업 체 명	근무지	연령	성별	근무내용	급여	보험	연락처
1	경비직	(주)예주산업	수원시 권선구	65세 이하	남	경비직	월 120만원	4대보험	02-2289-4322
2	미화직	(주)회세택	경기도 부천시	65세 이하	여	미화직	월 90만원	4대보험	02-2289-4321
3	단순직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영상유통사업소	경기도 오산시	50세 이하	남	배달 및 CCTV조립	월 110만원	4대보험	02-2289-4322
4	단순직	지지도토	인천 서구	30세 이하	남	타이어 수리	월 120만원	4대보험	02-2289-4321
5	미화직	(주)나라개발시스템	서울 마포구	65세 이하	여	아파트 미화직	월 85만원	4대보험	02-2289-4321
6	운전직	(주)지피솔루션	서울시 구로구	35세 이하	남	거래처납품 및 배송	월 160만원	4대보험	02-2289-4322
7	주차관리	(주)청인시애프트 비즈니스글로벌	서울시 강남구	40세 이하	남	발렛파킹	월 140만원	4대보험	02-2289-4322
8	서비스직	맥스터디	전국	50세 이하	무관	중고등학생 수학 영어 강사 (재택근무)	월 150만원	4대보험	02-2289-4321
9	상담직	케이디텍	서울시 은평구	45세 이하	무관	상담직	월 120만원 이상	4대보험	02-2289-4322
10	단순직	(사)해든	서울시 금천구	55세 이하	남	비데 부품 단순 조립	월 100만원	4대보험	02-2289-4322
11	생산직	(주)정립전자	서울시 광진구	35세 이하	남	SMT업무/2교대	월 140만원	4대보험	02-2289-4321
12	단순직	미래환경	경기도 용인시	연령무관	무관	재활용 분류직	월 95만원	4대보험	02-2289-4322
13	경비직	케이피앤	서울시 강서구	50세 이하	남	보안직	월 150만원	4대보험	02-2289-4322
14	경비직	모아안전시스템	서울시 강남구	68세 이하	남	경비직	월 105만원	4대보험	02-2289-4322
15	단순직	샘물산업	경기도 남양주	40세 이하	남	단순직	월 90만원	4대보험 미가입	02-2289-4322
16	생산직	한국보건복지인력 개발원	서울시 관악구	30세 이하	남	사무직	월 102만원	4대보험	02-2289-4321
17	생산직	로얄 라이프	서울시 구로구	무관	무관	미싱 보조직	월120만원	4대보험	02-2289-4321
18	서비스	행복의 뜰	서울시 동대문구	40세 이하	무관	서빙 및 주방보조	월100만원	4대보험	02-2289-4322
19	경비직	(주)국제안전시스템	서울 양천구	68세 이하	남	경비직	월 126만원	4대보험	02-2289-4322

소리로 읽는 새보람



‘기부’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원동력

(주)도원이엔씨 성우종 대표의 장애인 사랑

충남지장협, 5천만원 상당 생필품 후원받아



(주)도원이엔씨 성우종 대표로부터 5천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후원받은 충남지장협.

한가위를 맞아 충청남도지체장애인협회(협회장 이견휘, 이하 충남지장협)에 사랑의 손길이 전해졌다.

충남지장협은 (주)도원이엔씨 성우종 대표로부터 5천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후원받았다.

후원받은 생필품은 충남지장협 15개 시·군지회를 통해 저소득 장애인 1530가구에 전달됐다.

성 대표는 충남지장협에서 매년

개최하고 있는 장애인 합동결혼식에도 3천만원을 지원해 저소득 장애인 부부들에게 꿈과 희망을 선사하기도 했다.

충남지장협 이견휘 협회장은 “한 기업인의 사랑과 관심이 저소득 장애인들에게 삶의 의욕을 불어넣어 주고 충남 장애인 복지 향상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관리공단 경주시사로부터 쌀을 전달받은 영천장복.

국민연금관리공단 경주시사의 온정의 손길

영천장복, 지역장애인 위한 쌀 전달받아

추석을 앞두고 영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이제근, 이하 영천장복)에 후원 물품이 전달됐다.

영천장복은 9월 12일 국민연금관리공단 경주시사로부터 쌀을 후원받았고 이는 영천장복 고객과 지역 주민들에게 전해졌다.

국민연금관리공단 경주시사 관계자는 “명절을 맞이하는 장애인들에

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후원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영천장복 이제근 관장은 “지역장애인을 향한 국민연금관리공단 경주시사의 따뜻한 사랑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장애인에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전국에 17개 시·도 협회와 231개 시·군·구 지회를 두고 있는 비영리 순수 장애인단체입니다.

또한 이 나라 500만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자립을 위해 장애인 고용촉진사업, 각종 교육사업, 장애인예술제 및 중증장애인배우자 초청대회, 장애인자립작업장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대한민국 장애인복지를 선도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모여 장애인복지를 꽃피우고 이들이 다시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것으로 확신하며 ‘사랑 나눔 운동’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 회원구분

일반회원1 (2천원/월)	일반회원2 (5천원/월)	일반회원3 (1만원/월)
특별회원1 (3만원/월)	특별회원2 (5만원/월)	특별회원3 (10만원/월)
단체회원 (연 20만원이상)	기금회원	물품회원

■ 후원금 납부방법

-지로, 자동이체, CMS
-후원계좌 : 국민 822-01-0136-451
농협 033-01-174991

※ 후원금은 연말에 소득공제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후원신청

- ① 전화신청 : ☎02)796-4280
- ② 홈페이지 신청
협회 홈페이지(<http://www.kappd.or.kr>) 접속 - 나눔마당 - 후원신청

■ 2013년 9월 후원자 명단(가나다 순)

김경희, 김구환, 김영진, 김정기, 김정훈, 김진호, 김천장애인종합복지관, 김한경, 남용원, 박종형, 반형만, 서동녀, 선병욱, 우병훈, 우지현, 원종빈, 유재복, 육근록, 윤재환, 이은정, 정태훈, 임재중, 장주자, 정다운, 정산용, 정해근, 주명희, 주승운, 주영래, 하정미, 해피빈

(후원자님이 후원해 주신 후원금은 480만 장애인들과 복지증진을 위해 쓰여 질 것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날말맞추기 CROSSWORD

★1	2		3			4	
	5					6	★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		20				

‘★’에 있는 말로 단어를 조합해 우편엽서에 정답을 적어 보내주시면 정답자를 추첨해 상품을 드립니다.

<보내실 곳 (우: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3층 대외협력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필히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모
요령

[가로열쇠]

- 지구 표면의 상태를 일정한 비율로 줄여, 이를 압축된 기호로 평면에 나타낸 그림.
- 처지를 바꾸어서 생각하여 봄.
-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사람의 머리나 피부 따위를 아름답게 매만지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 벼슬아치 사이의 예의.
- 분개하여 몹시 성을 냄. 또는 그렇게 내는 성.
- 자동차 · 기차 · 배 · 비행기 따위를 이용하여 사람이 오고 가거나, 짐을 실어 나르는 일.
- 가축이나 짐승을 먹이여 기르.
- 가로무늬가 없는 근육. 내장이나 혈관 따위의 벽을 이룬다.
- 신문, 잡지 따위에 실기 위하여 원고를 보낸 사람.
- 설탕을 넣고 조린 사과를, 밀가루에 달걀 · 버터 따위를

포함되니

꿀꺽, 근육, 신경계 중 어느 부분에 질병이나 외상으로 인한 신체기능 장애가 영구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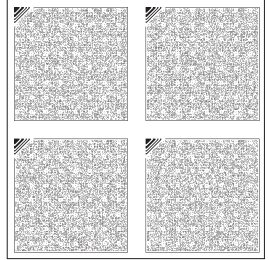
넣고 반죽하여 넓게 편 것으로 싸서 쥔 서양과자.

- 목적한 바를 이룬 정도.
- 다른 나라의 말.
- 색의 선명한 정도가 높음.
- 일정한 방세와 식비를 내고 머물면서 숙식하는 집.

[세로열쇠]

- 팻말이 연이어 넘어지듯이 어떤 현상이 인접 지역으로 파급되는 일.
- 인류의 역사에 관한 지식을 가르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 민족, 사회, 문화 등의 움직임을 생각하게 하는 교육.
- 공격 시간을 끌며 느리게 공격하는 방법.
- 머리가 자꾸 쓰시듯 아픈 모양.
- 그 자리나 장면에서 느껴지는 기분.
- 한자 네 자로 이루어진 말.

소리로 읽는 새보람



- 짜이 되는 남녀 한 쌍.
- 고기나 생선에 양념을 하여 구운 음식.
- 사람의 죽음을 슬퍼함.
- 파리를 때려잡는 데 쓰는 채.
- 기관이나 조직에서 한 국(局)을 맡아 다스리는 직위.
- 자기의 의견을 바꾸거나 고치지 않고 굳게 버팀.
- 사람, 차 따위가 잘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비교적 넓은 길.

8·9월호 정답

웹접근성

당첨자

정성오 경남 마산시 내서읍 한영희 강원 춘천시 신북로 강명숙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다른 그림 찾기 DIFFERENT SEARCH

두 사진에는 3곳의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10월 17일 서울 올림픽파크텔 올림픽아홀에서 열린 '2013 전국중증장애인 배우자초청대회' 축하공연에서 지적장애 소리꾼 최준 군의 판소리 마당이 펼쳐지고 있다.



응모요령 : 2장의 사진 중 아래의 사진에 서로다른 부분을 표시하고(2개 이상) 절취한 후, 우편엽서 뒷면에 붙여서 보내주시면 정답자를 추첨해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보내실 곳 (우: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3층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대외협력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필히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달 정답자 세 분에게는 가브리엘 천연공방에서 생산하고 있는 '천연비누'를 상품으로 보내드립니다.



가브리엘 천연공방의 천연비누

천연화장품 & 천연비누

당신의 피부...
피부가 살아 숨쉴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자연을 생각하는 아인미의 모든 원료는 화학원료가 아닌, 자연 속의 식물에서 추출한 식물성 오일과 천연광물, 천연색소와 화장을 원료 기준으로 적합하고 검증된 원료들로부터 만들어진 과학적이고 친환경적인 제품입니다.

자연을 힘으로 스트레스와 유해물질들로 지치고 손상된 당신의 피부에 생기를 불어넣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인미 비누는, 천연비누업계 최초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인증 및 ISO14001환경경영시스템인증 받은 제품을 취급하여 만들 수 있습니다



기남품, 달래품



천연화장품



천연비누



천연물류관장



천연비디워시

천연주방세제

*가브리엘 천연공방 수익금은 장애인 직업재활을 위해 쓰여집니다.

문의
Tel. 930-0783 Fax. 930-0784
서울시 노원구 상계1동 1021-21
http://www.gabrielcenter.or.kr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제11기 지회장 정기모집 공고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는 지역장애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할 제11기 지회장을 공개모집합니다.

1. 모집대상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시·도협회 산하 **시·군·구지회장**

2. 자격요건

- 장애인복지를 위한 신념과 희생의 의지를 가진 자
- 지체장애인으로서 협회 정회원인 자(정회원이 아닌 경우 정회원 가입 후 선임신청 가능)
- 기타 협회 정관 및 제규정에 부합되는 자

※ 응시자격 결격사유 :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정관 제12조

-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장애인복지법령에 의한 등록장애인이 아닌 자
- 4) 협회의 제명처분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5)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6) 금고이상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 7) 금융채무불이행자로서 회무에 지장이 있는 자

3. 제출서류

■ 1차 서류

- 1) 선임신청서 1부(협회 소정양식)
- 2) 정회원 추천서(정회원 15명이상 추천) [협회 소정양식]
- 3) 이력서 1부
 - 최종학력증명서 1부, 경력증명서 1부, 자격증사본, 표창장사본 등
- 4)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1~2매 이내)
 - 장애발생년도 및 장애인인, 활동경력 명기
- 5) 지회운영계획서 1부(A4용지 5매 이내, 구체적으로 기술)
- 6)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수첩) 사본 1부
- 7) 정회원증(앞, 뒷면) 사본 1부
- 8) 주민등록등본 1부
- 9) 범죄경력조회서(수사경력조회 회보서) 1부
- 10) 반명함판(3cmx4cm) 사진 4매
- 11) 타단체(임원 및 직원) 사임각서(해당자에 한함)

■ 2차 서류

- 1) 각서 공증(협회 소정양식)
- 2) 재정보증서(재산세3만원이상납부하는자1명)1부 [협회 소정양식]
 - 재정보증서에 보증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첨부
- 3) 신원보증보험증권(₩50,000,000원) 1부
- 4) 재산세납부증명원(재정보증인) 1부
- 5) 신원보증서(협회장) 1부(협회 소정양식)
 - 신원보증서에 협회장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첨부
- 6) 시·도협회장 추천서 1부(협회 소정양식)

4. 서류 접수방법 및 기간

- 1차 서류를 구비하여 접수처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접수
- 1차 서류 : 2013년 11월 11일(월) 오전 9시 부터 ~ 11월 25일(월) 오후 6시 도착분
- 2차 서류 : 추후통보(접수처 및 개별)

5. 선임내정자 발표 : 2013년 12월 말(예정)

6. 최종승인 : 2014년 1월 중 실시될 직무교육 이수자에 한함

7. 지회장 임기 : 2014년 1월 1일 ~ 2016년 12월 31일

8.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신청서 교부 : 중앙회, 시·도협회 홈페이지 및 각 사무처
- 접수처 : 각 시·도협회 사무처

9. 기타 유의사항

- 회원추천은 반드시 본협회 정회원으로 받을 것
- 접수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으며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접수된 응시원서나 구비서류는 일체 변경 · 추가보완 등이 불가합니다.
-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미제출시 임명을 취소합니다.
- 제출된 서류의 기재 착오 · 누락 또는 연락이 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지회장 선임자로 내정된 경우 반드시 본 협회에서 주관하는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 이수자에 한하여 최종승인 및 임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접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로 22번지 이룸센터 404호	02)797-5413 팩스797-5415
부산	동구 중앙대로 196번길 12-3, 8층	031)465-8857 팩스465-9058
대구	중구 대봉1동 44-30번지 선모빌딩 4층	053)954-0170 팩스956-4108
인천	남동구 간석3동 산27-5 인천사회복지관 107호	032)884-2373 팩스884-2374
광주	북구 금재로 78 구.북동우체국	062)529-3329 팩스521-8835
대전	유성구 지족동 893-4 수성빌딩 5층	042)471-0084 팩스822-2636
울산	북구 송내1길 6(화봉동) 화봉빌딩 3층	052)283-1216 팩스283-1214
강원	춘천시 석사동 322-1	033)262-1211 팩스261-1211
경기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380-10	031)247-7721 팩스246-7721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직1동 554-6	043)266-8025 팩스271-3129
충남	공주시 신관동 605-8 미도빌딩 4층	041)853-4907 팩스853-4903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4가 1번지 서편동 1층	063)288-9245 팩스288-1415
전남	목포시 미항로 81(상동1152-9) 3층	061)287-4990 팩스287-4993
경북	포항시 남구 이동 643-4 3층	054)273-1012 팩스273-1014
경남	창원시 두대동 145 창원종합운동장 내 134호	055)266-3228 팩스266-1551
제주	제주시 이도1동 1660	064)756-4980 팩스756-0066